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남아프리카공화국

목차

※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 일반

1. 국가개요	4
2. 한국과의 관계	5
3. 경제현황	8
4. 정치	10
5. 주요산업	11

II. 무역

1. 수출입	13
2. 한국과의 수출입	22
3. 수출 유망항목	25
4. 무역협정	28
5. 수입규제 및 관세	30
6. 통관 · 물류	35

III. 투자

1. 투자환경	39
2. 외국인직접투자	47
3. 한국기업 투자	49
4. 투자진출방식	55
5. 외환	59
6. 노무	61
7. 세무	63
8. 지식재산권	65
9. 청산 및 철수	66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68
2. 비즈니스 에티켓	70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74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74

5.출입국 안내	76
6.유관기관	79
7.물가정보	81
8.출장정보	83
9.생활정보	85
10.KOTRA 무역관 안내	95
11.전시회 정보	103
	104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면적	1,219,090 km ² (자료원 : CIA, 2022년 기준)
수도	Pretoria(행정수도), CapeTown(입법수도), Bloemfontein(사법수도)
인구	60,290,182 명 (자료원 : World Population Review, 2023년 기준)
민족(인종)	흑인(81%), 혼혈(8.8%), 백인 (7.6%), 인도/아시아계(2.6%)
언어	영어, 아프리칸스어, зулу어, 코사어 등을 비롯한 11개 공식 언어 사용, 비즈니스 어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됨.
종교	기독교(77.9%), 무교(10.9%), 토속 신앙 (4.4%), 이슬람(1.6%), 힌두교(1%), 유대교 (0.1%) 등
기후	남아공의 연평균 기온은 약 17℃로 동부지역이 서부보다 온난 다습하다. 지역에 따라 기후 차이가 있으나 고지대에 위치한 요하네스버그, 프레토리아 등은 일조시간이 길며 전반적으로 쾌적하나 다소 건조한 편이다. 케이프타운은 지중해성 기후로 연중 10℃~25℃의 기후를 유지한다.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과 계절이 반대이며 한국과 비슷하게 사계절을 가지고 있으나 봄, 가을은 대체로 짧은 편이고 겨울에도 대부분 영상의 기온이지만 체감온도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편이다. 여름은 우기로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은 건기로 강우량이 극히 소량에 불과하다. 다만 케이프타운이 위치한 웨스턴 케이프 주는 겨울이 우기이고 여름이 건기이다.
국가원수	Cyril Ramaphosa (대통령, 선임일: 2018년 2월)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92-12-01 (자료원 :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항공협정	1995-07-07	지정된 민간항공사가 서로의 영토를 비행할 권리, 승객 및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권리 등	
이중과세방지 협약	1996-01-07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된 소득의 조세의 이중부담을 없애고 과세상 내외국인의 동등 대우, 그리고 양국간에 조세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함	
투자보장 협정	1997-06-06	국가 간 투자를 촉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함	
남아공국립검정원 기능향상사업시행 약정	2000-08-14	남아공 국립기능검정원의 기능향상을 통하여 남아공 국민복지의 향상과 사회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미화 300만달러를 무상원조를 제공	
과학기술협력 협정	2004-08-31	과학기술협력 협정	
원자력협력 협정	2011-02-2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여 원자력 교역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인적교류 등 원자력 제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	

범죄인인도조약	2014-06-20	외국에서 그 국가의 형법 내지 기타의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온 경우, 그 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2014-06-20	형사사건에서의 협조와 상호 공조를 통하여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진압에 있어서 양국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	

한국교민 수

3,357 명 (자료원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1 (2022년 9월 조사기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1994년 5월 최초의 다인종 선거에 의한 흑인 다수정부 수립 이후 만델라 대통령이 1995년 7월 방한한 데 이어 1998년 4월 및 2007년 5월 각각 음베키 부통령과 음람보-응쿠카 부통령이 방한하고, 2006년 2월 이해찬 총리가 남아공을 방문하는 등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국관계가 발전했다. 이후 2010년 11월 남아공 주마 대통령이 방한(G20 정상회의)하고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남아공을 방문해 더반에서 주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2012년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주마 대통령이 두 번째로 방한했다. 이후 양국 정상 간 공식 방문은 없었으나 2018년 G20 계기 아르헨티나에서 6년 만에 한-남아공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라마포사 대통령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고 양국 간 교역 확대, 투자 활성화,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년 7월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공 3개국을 방문하여 외교장관으로는 최초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부, 서부, 남부를 동시에 방문했다. 동 순방에서는 특별히 아프리카와 한국 간 호혜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기로 했다. 2020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라마포사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모범적인 대응을 따라가겠다고 언급하며 남아공에 대한 의료 지원을 요청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전쟁 참전국인 남아공에 마스크를 지원하겠다고 결정, 2020년 7월에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서 마스크, 살균제, 진단키트를 남아공 보건부에 전달했다. 또한 외교부는 2022년 4월 중순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를 본 남아공을 돕기 위해 1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2021년 6월에는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남아공이 초청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라마포사 대통령이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2022년 8월은 한-남아공 수교 30주년을 맞아 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 남아공국제문제연구소 공동으로 수교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남아공에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요하네스버그 시의회, 남아공 전경력이 참석했으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 AfCFTA 등 관련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남아공 정치계 주요 인사 방한은 2015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2019년 10월 쉐레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이후 2022년 9월 타방 국방부 차관은 방산 협력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고, 2022년 10월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제1차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나레디 판도 남

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외교부) 장관도 방한하여 경제·통상·투자, 과학기술, 원전·재생에너지 등 자원 협력, 문화교류 등 실질협력 분야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으로 풍부한 지하자원과 대륙 내 가장 발달한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물류의 중심지로서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거점 국가로서 그 중요성이 높고 경제통상 협력 관계 발전 잠재력 또한 다분하다.

2004년 6월에 개최된 한국-남아공 정책협의회에서 한국정부가 양국 간 FTA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남아공 정부는 동 FTA의 타당성 조사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남아공은 연구기관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한국 측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한국-남아공 FTA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양국 간 FTA 체결로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아공은 1차 산업 분야에서 수출이 증대됐다.

2019년 7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소재 남아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된 한국-아프리카 경제포럼에서는 아프리카와 한국 간 파트너십 강화 및 호혜적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되었다. 2020년 11월 한-아프리카 재단과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이 공동 개최하는 2020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어 한-아프리카 간 언택트/온택트 산업 및 보건의료산업 등의 협력 논의가 진행되었다. 2021년 외교부는 한-아프리카재단, 아프리카연합(AU), 대한상공회의소(KCCI),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공동으로 '2021 한-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을 성료한 바 있다. 2022년 6월에는 한-남아공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주남아공대사관에서 한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경제 발전의 교훈을 아프리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 8월 남아공 국영 전력공사(Eskom)의 COO, 잔 오버홀처는 한국을 방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해 협력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문화

남아공은 한국에 영어 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어, 교사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남아공인이 많은 편이다. 이에, 한국을 방문하는 남아공인은 2013년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및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남아공인의 수는 약 3천100여 명으로 감소했으며, 남아공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 또한 약 4천 명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2022년 6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가 면제되고 9월부터 PCR/RAT 음성확인서 제출이 중단됨에 따라 방한하는 남아공 관광객의 수가 7,275명으로 2021년 대비 320.3% 증가했다.

남아공과 한국 간 문화 교류는 케이팝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는 편인데, 2019년 11월 케이프타운에서 한국 문화의 날이 개최되어 케이팝 경연대회, 사물놀이팀 공연, 현지 B-boy 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한복 입기 체험,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제6회 한국영화음식축제가 약 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다. 2018년 3월 케이프타운대학교에 사상 최초로 케이팝 등 한국문화를 즐기는 동아리가 신설되었는데 그동안 자발적인 케이팝 모임 등이 현지 젊은 층 사이에서 만들어져왔지만, 대학 공식 동아리가 생긴 것은 처음이다. 요하네스버그, 프레토리아, 포체스트룸, 케이프타운, 스텔렌보쉬, 더반 등 주요 도시에서 한글학교가 운영되며, 교민들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은 2016년부터 소비재대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는 요하네스버그 최대 쇼핑몰 Mall of Africa에서 K-Lifestyle in Africa라는 주제로 B2B 화상상담회와 B2C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팝업 홍보관 등을 동시에 선보이며 한국 상품과 문화를 현지에 알린 바 있다.

2021년 11월에 개원하게 된 주남아공한국문화원에서는 전시/공연, 태권도교실, 요리강좌, K-POP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세종학당을 개설해 한글수업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서는 매년 한국영화음식축제를 열어 다양한 한국음식과 간단한 체험교실, 케이팝 장기자랑 및 한국영화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	0.1	-6.4	4.9	2	
명목GDP (십억\$)	388.1	335.3	421	976.8	
1인당 GDP (PPP, \$)	14,632	13,682	14,981	16,309	
1인당 명목 GDP (\$)	6,623.6	5,654.8	7,030	6,771	
정부부채 (% of GDP)	57.3	70.6	67.3	71	
물가상승률 (%)	4	3.1	5.9	7	
실업률 (%)	28.7	29.2	34.3	33.5	
수출액 (백만\$)	89,771	85,565	122,853	123,257	
수입액 (백만\$)	88,139	68,887	93,422	111,117	
무역수지 (백만\$)	1,632	16,678	29,431	12,140	-
외환 보유고 (백만\$)	55,060	55,013	57,589	46,966	
이자율 (%)	6.5	3.5	3.83	5.1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4.45	16.46	15.93	16.37	

〈자료원 : EIU, IMF, South African Reserve Bank, GTA〉

나. 경제 동향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GDP의 약 20%를 점유하는 역내 경제 대국 지위를 보유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달한 사회기반시설과 금융 산업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014년 이래 1%대의 낮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부진한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다.

중산층 증가에 따른 의료, 통신 등의 서비스 산업 성장, 소비자물가 안정세(목표범위인 3~6% 진입) 등은 경제성장의 주요 긍정적 요인이

긴 하나, 주요 국영기업의 재정 부실, 전력난 지속, 높은 실업률, 광업 및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의 성장 저하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속 확대되고 있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과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에 취약한 환율 불안정성은 남아공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는 남아공 경제에도 타격을 입혀 랜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가신용등급 또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남아공 국가신용등급을 투자 가능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3월 투자부적격(경크) 등급으로 강등함에 따라 국제 신용평가사 3사의 국가신용등급은 모두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 되었었지만 2023년 5월 무디스는 Ba2(안정적 전망), S&P와 피치는 BB- (안정적 전망)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2021년 남아공 GDP 성장률은 4.9%를 기록했으나 이는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로, 2022년에는 2% 성장률을 보이며 예상수치였던 1.9%를 조금 웃돌았다. 저성장 경제 전망과 여전히 높은 실업률, GDP 대비 높은 정부부채, 전력난, 민심 약화 등에 따른 사회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전력난으로 인해 2007년부터 시행된 순환단전 (loadshedding) 이 점점 악화되면서 발전기를 사용할수 없는 중소기업규모의 생산업이 큰 타격을 입음으로서 더욱 남아공의 전반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러-우 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달러 고환율 기조 등 외부적인 리스크에 맞물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2022년 남아공 기준금리는 최근 2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6.25%까지 달했으며 2023년의 기준금리는 더욱 높아진 7.75% 까지 상승했다. 달러 대비 랜드화 환율은 2023년 5월 9일 기준 약 R18.42 를 기록하고 있다.

다. 경제 전망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며 글로벌 교역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활동 또한 저하, 남아공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8년과 2019년에 경기침체에 돌입하는 등 남아공 경제는 이미 부진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던 바, 코로나 19가 미치는 경제 여파가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 2022년 남아공 경제는 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 기조를 보였다. 물가상승률은 원유 가격 상승, 전기세 인상, 물류비 증가 등의 요인들로 인해 7.1%까지 상승하였다. 원자재가격 상승,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등으로 랜드화 절하 압력을 일부 상쇄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긴축 정책 및 달러 강세 등으로 달러 대비 랜드화 평균 환율은 R16.37/\$ 로 전년도 보다 높았다.

남아공의 심각한 전력난을 상쇄, 경제 회생 및 친환경적인 운영방침을 위하여 남아공 정부는 인프라, 에너지 산업 중심의 경제 재건 및 회복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온라인 쇼핑, 원격 서비스 활성화 등과 같은 비대면 디지털화와 2021년 1월 공식 시행을 알린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통상 확대 및 GVC 재편 움직임 등이 남아공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정치

가. 정치체제

네덜란드와 영국의 식민통치 및 내전, 그리고 공화국 수립 후 백인 정부의 통치를 겪으며 1994년에서야 힘겹게 민주주의를 쟁취한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몇 안되는 다당제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다.

1994년에 인종차별제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를 끝내고 민주주의로 탈바꿈 하며 첫 전인종 투표로 선발된 대통령이 널리 알려진 넬슨 만델라 이다(1994년 5월 ~ 1999년 6월 재임). 그 당시 자유를 위해 싸운 아프리카민족회의당(ANC: African National Congress)이 첫 집권당시 압도적인 지지율로(62.65%) 승리한 후 현재까지 여당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으나 그 지지율은 서서히 하락하여 가장 최근 총선거(2019년) 결과에 따르면 총 400석 중 여당인 ANC는 57.5% / 230석, 제 1야당인 민주동맹당(DA - Democratic Alliance)는 20.77% / 84석 그리고 제 2 야당인 경제자유투사당(EFF - Economic Freedom Fighters)는 10.79% / 44석의 지지율을 보였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 제도로, 모두 임기 5년으로 구성되고, 원수가 되는 대통령은 의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의회는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 350-400명)의 하원과 더불어 9개의 주(州)를 대표하는 각 10명으로 구성된 전국국가평의회(National Council of Province, 총 90명의 의원)로 양원제를 취하고 있으며, 상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조정역할을 한다. 이러한 양원제는 남아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종, 문화 등을 고려한 정부형태를 채택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강화와 연방제 국가의 성격을 담고 있다. 남아공의 정부는 중앙정부 영역, 주정부 영역 및 지방정부 영역으로 구성된다.

나. 최신동향

2022년 12월 집권당 ANC의 전당대회로 라마포사 대통령이 당 대표 재선에 성공했다. 다수당 대표가 대통령직에 오르는 정치 구조를 보유한 남아공에서는 오랜 집권당인 ANC의 대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2024년 총선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ANC 측은 2019년 총선 득표율 57.5%, 2021년 지방선거에서는 45.6%로, 1994년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바 있어 지지율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 농장에서 거액의 현금이 도난되었던 사건, 팔라팔라 스캔들을 비롯해 국가적 재난인 전력 부족 사태, 경제 불황, 정치적 부정부패 등이 라마포사 대통령의 총선 전 선결과제이다.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 국가이자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인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 특히 남부 및 중앙/동아프리카와 깊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대내외 정치 경제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강력한 제도, 건전한 금융을 바탕으로 대륙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제 기업의 투자를 계속해서 유치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다른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남아공의 투자는 은행 및 통신에 중점을 두고 광범위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정책 · 법령

남아공의 수도는 입법수도, 행정수도, 사법수도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수도는 케이프타운(Cape Town)이고, 대통령궁이 위치하고 있는 프리토리아(Pretoria)는 행정수도이다. 그리고 정치와 문화의 도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고재판소를 비롯하여 주정부와 주 의회가 위치한 블룸폰테인(Bloemfontein)은 사법수도이다. 또한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도시인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는 비록 수도는 아니지만, 남아공 최대의 도시로서 경제의 중심지이며 헌법재판소가 위치하고 있다.

남아공은 대륙법과 보통법의 혼합법제를 가지고 있다. 남아공의 헌법은 1996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16차례 개정을 하였는데 이는 현대 헌법 중 가장 진보적이고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모든 영역과 각 영역 내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거하여 나라의 평화, 국가적 단결 및 불가분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공화국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자의 영역에서 정부의 헌법적 지위, 제도, 권한 및 기능을 존중하여야 하며 우호관계의 조성, 상호보조 및 지원, 공통의 관심사 상호 통지 및 협의, 각자의 조치 및 법률 상호 조율, 합의된 절차 준수, 상호간 소송 절차 방지의 방법을 통해 상호 신뢰 및 성실로써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헌법 제41조 제1항).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인 만큼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여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이 헌법의 제 2장인 Bill of Rights 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 일례로 남아공은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첫번째로 2006년에 동성혼을 합법화 한 나라이며 학교나 직장에서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5. 주요산업

가. 개요

남아공은 제조업, 건설업 외에도 금융, 유통, 서비스 등 3차 산업까지 고루 발전한 성숙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기준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3차 산업(74%), 2차 산업(18%), 1차 산업(8%)의 구조를 띠고 있으며 금융·부동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조업, 광업, 소매업 등이 남아공 GDP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이며 세부적으로는 ICT, 의료, 자동차, 소비재 산업 등이 유망한 편이다. 그러나 안정적 전력 수급, 생산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기술자 양성 및 고급인력의 노동시장 공급 확대 등은 전반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1) 농업

남아공의 농업은 주식을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적 근간 산업이다. 남아공 전체 노동인구의 약 30%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작물 중에서는 현지인들의 주식인 옥수수 밀(Maize) 재배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급감은 GDP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보상 없는 토지개혁 정책 이행 여부 역시 남아공 농업의 투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광업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찍이 광산업이 발전했다. 세계 크롬 매장량의 35.7%, 망간 30.3%, 형석 13.2%, 금 11.1%를 차지하며 세계 5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이기도 하다. 최근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광업 생산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노조파업 및 인건비 상승 역시 광업 침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인프라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프라 건설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역내 타 국가 대비 잘 발달된 도로, 항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필요성이 높은 편이다. 주요 항만은 더반, 케이프타운, 포트엘리자베스에, 대형 국제공항은 요하네스버그, 더반, 케이프타운에 위치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교통 요충지 역할 수행한다.

4) 에너지

전체 전력 생산의 80% 이상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발전소 노후화, 남아공 국영전력공사(Eskom)의 높은 부채,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전력난이 심화되며 지역별, 시간별로 전력을 차단하는 순환단전을 고강도로 시행하고 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용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에너지저장장치, 태양열 발전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수요가 증가세이다.

5) ICT

높은 인터넷 및 휴대폰 보급률에 따라 ICT 산업도 발달했다. 2022년 기준 남아공의 모바일 가입자 수는 약 1억 명, 2031년에는 약 1억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모바일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MTN, Vodacom, Rain 등 주요 통신사들은 경쟁적으로 5G 서비스 도입하고 있지만 최근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투자 및 개발이 더뎠다. 온라인 모바일 뱅킹은 물론이며 간편 모바일 결제 및 송금 서비스도 보편화되어 있다.

6) 제조업(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은 남아공 전체 GDP에 약 4%를 기여하는 대표 제조업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기도 해 남아공 정부가 자국 생산능력 배양을 위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적 정책을 통해 자동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왔다. 현재 BMW, 도요타, 폭스바겐 등 세계 주요 메이커들의 생산공장이 운영 중이며 현대자동차, 르노, 볼보 등 다수 기업의 조립공장이 남아공에 진출해 있다. 남아공자동차제조협회는 2035 남아공 자동차마스터플랜(SAAM)을 통해 현지 생산 증대(60만 대→140만 대), 로컬 콘텐츠 비중 확대(38%→60%) 등을 추진하고 있고, 현지 제조된 자동차는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통해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현재 남아공 현지에서는 전기차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전기차 정책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유럽으로 수출될 전기차를 염두에 둔 업계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타 국가로의 투자가 늘어나고 대남아공 투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7) 소비재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대표적 소비시장으로 타 국가 대비 소득 수준이 높아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도 다수 진출해 있다. 아프리카 럭셔리 시장의 37%(22억 달러 규모)가 남아공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블랙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구매력을 갖춘 흑인 신중산층, 증가하는 도시인구 및 1인 가구 등이 남아공 소비시장 성장을 주도한다. 그리고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글로벌 콘텐츠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도가 낮아지며 한국 상품에 대한 인기도 확대되고 있다. 높은 모바일 보급률 및 온라인 플랫폼 확대를 기반으로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물가 인상, 고용 부진 등이 지속되고 있어 남아공 소비자들의 가격민감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8) 관광

도시와 자연환경을 모두 갖추며 아프리카 최대 관광산업을 보유한 남아공은 GDP의 약 8%를 관광업이 차지하고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등 특정국에 대해 비자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관광산업 박람회인 Africa's Travel Indaba가 매년 개최되기도 한다.

9) 의료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남아공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13억 달러로 2026년까지 1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수입 의존도는 약 90%에 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아공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 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과 의료 인프라 확충 수요가 향후 남아공 의료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2022년 기준 남아공의 대세계 교역액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2344억 달러이다. 수출은 18.9%, 수입은 0.3%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입 수출 모두 급감했으나 2021년부터 다시 반등하며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전력 부족난으로 인한 광물 생산량 감소와 함께 상품가격 둔화, 대외 수요 위축, 에너지 관련 수입 증가 등이 교역에 어떻게 작용할 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수입과 수출 모두 중국이 최대 교역국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독일, 미국, 인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이 전통적 교역국이다.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6,547,185,740
2	영국	8,551,873,307
3	독일	7,949,985,989
4	미국	6,776,371,399
5	인도	5,994,066,530
6	Areas, nes	4,996,791,890
7	일본	4,364,489,867
8	보츠와나	3,942,423,257
9	모잠비크	3,651,762,231
10	나미비아	3,565,081,367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4,274,510,450
2	미국	10,176,524,880
3	인도	7,952,917,769

4	영국	7,678,995,017
5	독일	7,056,331,686
6	Areas, nes	6,893,579,397
7	일본	3,837,592,611
8	벨기에	3,400,021,207
9	네덜란드	3,331,325,181
10	보츠와나	3,278,314,345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32,969,764,312
2	미국	15,688,040,656
3	독일	13,293,740,161
4	인도	11,003,218,973
5	영국	10,482,073,097
6	일본	10,102,544,681
7	아랍에미리트	4,291,305,499
8	스위스	4,188,164,325
9	홍콩	2,754,863,820
10	벨기에	2,371,476,449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EU	25,352,081,467
2	중국	11,694,960,568
3	미국	11,262,943,438
4	독일	11,189,197,325
5	일본	8,791,536,719
6	영국	6,871,061,823
7	네덜란드	6,031,788,589

8	스위스	5,927,092,710
9	모잠비크	5,830,841,900
10	인도	5,225,614,924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6,272,012,179
2	독일	8,894,388,306
3	미국	5,843,889,084
4	인도	4,343,087,023
5	사우디아라비아	3,694,662,048
6	나이지리아	3,652,074,711
7	영국	2,950,953,222
8	일본	2,882,112,209
9	타이	2,715,631,101
10	아랍에미리트	2,273,608,92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4,335,184,794
2	독일	6,326,832,214
3	미국	4,603,444,506
4	인도	3,593,695,760
5	사우디아라비아	2,685,992,749
6	타이	2,192,978,861
7	나이지리아	2,160,069,036
8	일본	1,963,192,425
9	이탈리아	1,779,763,327
10	영국	1,706,314,324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21,078,824,095
2	독일	9,453,584,391
3	인도	5,920,666,009
4	미국	5,025,076,494
5	이탈리아	2,618,064,701
6	네덜란드	2,584,633,277
7	일본	2,301,375,081
8	영국	1,941,995,311
9	프랑스	1,861,314,315
10	나이지리아	1,555,920,753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EU	25,334,979,818
2	중국	22,461,557,791
3	인도	8,333,645,576
4	독일	8,264,321,005
5	미국	8,212,666,171
6	사우디아라비아	4,500,861,669
7	아랍에미리트	4,108,427,412
8	태국	3,075,445,210
9	일본	2,895,391,496
10	오만	2,644,535,861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남아공은 주로 보석·귀금속, 광·슬랙·회, 광물성 연료 등 광물 자원의 세계적인 수출국이며 기계류, 전기기기, 차량 및 부품 등을 주로 수입한다.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0,897,475,409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0,447,647,082
3	270112	유연탄	4,558,626,006
4	260112	응결시킨 것	3,662,049,324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3,234,023,469
6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3,130,420,304
7	7110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034,915,291
8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2,937,287,544
9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684,628,245
10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2,680,975,057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0,557,516,598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717,777,488
3	260112	응결시킨 것	3,964,812,699
4	270112	유연탄	3,837,113,366
5	710239	기타	3,374,672,980
6	71103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203,080,643
7	7110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143,817,548
8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597,733,878

9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2,482,325,475
10	270119	그 밖의 석탄	2,403,223,285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6,440,354,921
2	71103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15,316,348,234
3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10,247,365,301
4	7110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062,782,674
5	710239	기타	5,852,597,648
6	7110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5,675,319,380
7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3,664,323,708
8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3,037,305,474
9	270119	그 밖의 석탄	2,969,902,167
10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2,944,390,065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112	유연탄	14,114,080,716
2	71103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7,449,227,708
3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7,384,693,757
4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4,860,226,957
5	7110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466,840,819
6	260112	응결시킨 것	4,303,978,321
7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3,918,454,063
8	261690	기타	3,711,775,551
9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3,555,609,682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110,878,083
----	--------	---------------------------------	---------------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918,642,558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438,432,870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430,550,086
4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848,451,648
5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436,004,820
6	300490	기타	1,386,408,273
7	490700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1,221,662,887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30,437,437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1,122,939,541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1,059,730,619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123,513,154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088,398,632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514,241,446
4	300490	기타	1,480,862,398
5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209,420,049

6	490700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1,028,156,986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931,510,345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79,603,061
9	282200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752,862,004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558,658,750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774,062,143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34,346,747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415,622,012
4	300490	기타	1,392,208,184
5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220,933,371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060,221,908
7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954,892,353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84,676,317
9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768,960,456
10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736,621,490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9,077,442,316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363,752,700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397,934,673
4	851713	-	2,032,531,003
5	300490	기타	2,007,286,004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911,532,976
7	490700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 (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1,882,704,639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171,863,296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168,180,278
10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101,778,435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해오던 한국과 남아공의 교역 규모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21년에 전년대비 35% 이상 반등하며 다시 36억 달러로 회복했다. 한국의 대남아공 유연탄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2022년 양국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49억 달러를 기록했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2023년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으나 대남아공 수입은 8.7% 증감하고 수출은 23.1% 하감하여 무역수지는 24.4억 달러 적자로 큰 규모의 적자 폭을 기록했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9	834	2,186	-1,352
2020	666	1,692	-1,026
2021	989	2,621	-1,632
2022	1,145	3,770	-2,625
2023	819	3,259	-2,44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한국의 대남아공 주요 수출 품목은 차량류, 기계류, 플라스틱, 전기기기, 광물성연료, 철강, 종이류, 화학공업품, 광학/의료 검사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광·슬랙·회, 귀석·귀금속, 광물성연료, 철강, 곡물, 차량류, 동과 그 제품, 알루미늄류, 기계류 등이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96	0	195
2	7251	건설중장비	61	0	61
3	2140	합성수지	90	0	90

4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1	0	0
5	7412	화물자동차	55	20	34
6	7420	자동차부품	40	6	33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40	8	31
8	1332	경유	27	0	26
9	6212	알루미늄조각공품	56	6	49
10	1336	윤활유	24	0	2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04	0	104
2	7251	건설중장비	61	0	61
3	2140	합성수지	55	0	55
4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41	0	41
5	7412	화물자동차	40	23	17
6	7420	자동차부품	36	8	28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34	4	30
8	1332	경유	34	0	34
9	6212	알루미늄조각공품	26	5	21
10	1336	윤활유	19	0	1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22	유연탄	0	1,345	-1,345
2	1120	철광	0	744	-744
3	1113	백금	0	750	-751
4	6181	합금철	3	302	-300
5	1190	기타금속광물	0	169	-169
6	0136	사료	0	67	-68

7	7419	기타자동차	1	39	-38
8	1130	동광	0	56	-56
9	0111	곡류	0	18	-18
1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8	7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22	유연탄	0	1,111	-1,111
2	1120	철광	0	587	-587
3	1113	백금	0	524	-524
4	6181	합금철	3	225	-222
5	1190	기타금속광물	0	143	-143
6	0136	사료	0	131	-131
7	7419	기타자동차	2	130	-128
8	1130	동광	0	116	-116
9	0111	곡류	0	29	-29
1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9	28	-1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액 (US\$백만)	194
수입관세율(%)	20	대한 수입액 (US\$백만)	3.5
선정사유	구매력을 갖춘 신흥중산층이 성장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경제부진, 가처분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퍼스널 그루밍(Personal Grooming) 트렌드에 따라 화장품 시장은 성장세		
시장동향	남아공 화장품 시장규모는 2021년 574억 랜드로 전년 대비 5.1% 성장하였으며 2025년에는 760억 랜드 규모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경쟁동향	화장품 시장점유율의 90%는 글로벌 브랜드이며 로컬 브랜드 제품 점유율은 10% 수준이나, 최근 K-beauty에 대한 주요 유통망의 관심 확대		
진출방안	초기 진출시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시장 접근이 용이하며, 제품력을 기반으로 대형 유통망 PB 브랜드로 진출도 가능.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영문 패키징과 라벨링이 필수요소로, 현지인의 특성과 문화에 맞는 제품 보완 필요		

○ 에너지저장장치

HS CODE	8501, 8506	수입액 (US\$백만)	292
수입관세율(%)	0~20	대한 수입액 (US\$백만)	1.5
선정사유	높은 화석 연료 의존도와 기후변화가 남아공 경제를 위협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에너지 위기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		
시장동향	남아공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규모는 2021년 33.5억 랜드로 전년 대비 15.18% 감소했으나 계속된 전력난으로 시장규모 확대 예상		
경쟁동향	중국이 수입시장의 37% 점유, 미국, 독일, 브라질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남아공 정부는 독립발전사업자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또한 도모		
진출방안	순환단전 대비용 충전식 전구 등에 대한 수요도 여전하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품과 기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세, 상품 진출 시 관련 기술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확실한 A/S 서비스 또한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남아공 에너지부의 정책 흐름을 잘 파악할 필요		

○ 의약품

HS CODE	3001, 3002, 3003, 3004	수입액 (US\$백만)	2,914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31
선정사유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최대 규모의 의약품 시장으로, 가장 발달된 의약품 시장이자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시장동향	남아공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1년 37억 달러로 현지 통화 기준 향후 5년간 꾸준한 성장 전망		

경쟁동향	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수입되며, 인도, 독일, 미국, 프랑스가 전체 수입시장의 65% 점유.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남아공에 상주하고 있으며 Aspen Pharmacare와 Adcock Ingram 등 현지 생산기업도 존재, 주로 일반의약품 생산에 집중
진출방안	남아공 정부는 현지 생산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외국회사는 정부 조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

○ 광케이블 부품

HS CODE	8536	수입액 (US\$백만)	375
수입관세율(%)	0~15	대한 수입액 (US\$백만)	3.5
선정사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ICT 기술 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광케이블 관련 부품 수입 증가세		
시장동향	광케이블 부품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51억 달러로 5G 도입에 따라 광케이블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며, 최근 온라인 쇼핑 및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 이용자 급증, 재택 근무 확산 등으로 디지털 인프라 관련 제품의 수요는 꾸준할 것		
경쟁동향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		
진출방안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ICT 기술을 바탕으로 품질을 강조하되 중국산 저렴한 제품과 경쟁해야하는 만큼 가격경쟁력 필요		

○ 자동차 부품

HS CODE	8708	수입액 (US\$백만)	1,687
수입관세율(%)	0~30	대한 수입액 (US\$백만)	34.2
선정사유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중고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차 부품 수요도 유지되고 있음.		
시장동향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최대 수요처로 최근 자동차 수요모델 다양화, 기술 복잡화 등으로 인해 A/S 부품 수요도 다양화 및 확대 추세		
경쟁동향	중국, 독일, 미국, 일본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며, 최근 소비자들의 가격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수입비중이 가파른 상승세		
진출방안	A/S 부품은 종류와 특성에 따라 가격, 품질 등 민감도 차이가 크므로, 타겟 수요층에 따른 전략수입이 중요. 국내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교민기업들이 운영중이므로 초기 진출시 협업 가능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의료

선정사유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남아공 의료시장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소득 향상에 따라 수요 다양화
시장동향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최대 의료시장인 동시에, 국민건강보험(NHI) 도입 및 비전염성 질환 확대 등 신규 시장수요 성장. 특히, NHI의 도입은 공공보건 시스템에 대한 민관 투자 확대로 연계 기대

경쟁동향	의료 서비스는 유럽이나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인지도가 높은 편
진출방안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생산 또는 기술이전 계약,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시장 진출 가능. CSR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도 효과적. 혹은 소유의 현지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술 이전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

○ ICT

선정사유	남아공은 타 아프리카 국가 대비 발달한 IT 기술 및 인터넷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라마포사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시스템 전산화 및 스마트시티 개발 필요성 강조
시장동향	2021년 기준 남아공 휴대폰 가입자 수는 약 1억 명, 모바일 보급률은 166%로 꾸준히 성장세이며 주요 통신사들은 경쟁적으로 5G 서비스 도입
경쟁동향	중국은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력관계 하에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주요 프로젝트 선점 우위
진출방안	민원시스템 전산화, IoT 접목한 생활 SOC 확대,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등 선진기술 접목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 가전, 헬스 케어, 보안 장비 등 소형기기 분야를 시작으로 진출 가능

○ 인프라

선정사유	남아공 정부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추진 중
시장동향	향후 10년간 에너지, 수자원, 운송, 정보통신, 농업, 농가공, 주택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276개의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가 시행될 예정
경쟁동향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따라 중국 건설기업에서 적극 투자하는 추세
진출방안	한국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확실한 A/S 제도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중요. 흑인경제육성법(BBBEE) 등 남아공 정부의 현지 조달 강화 기준에 맞춰 역량있는 현지 파트너를 발굴, 협력을 통한 수주 경쟁력 확보 필요

○ 콘텐츠

선정사유	전세계적인 K-pop 열풍에 힘입어 남아공 내에서도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문화콘텐츠 외에도 의류, 문구류 등 파생 상품 수요가 높고 있음. 최근 현지 유료 위성 TV 서비스인 DSTV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20년 11월부터 tvN 채널을 도입
시장동향	남아공 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110억 달러로 추산,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나 '16-'21년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
진출방안	한류 콘텐츠와 화장품, 생활용품 등 연계상품을 접목한 공동 마케팅을 통해 동반 진출 모색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남아공, EU		2000-01-01	
SACU(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2002-01-01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SACU FTA	SAC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8-05-01	
SADC(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FTA	남부 아프리카 16개국		2008-08-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SADC-EU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EU		2016-10-10	2019년 2월 EU-SADC간 첫 합동총회(joint council) 개최 2020년 2월 브뤼셀에서 6차 교역개발위원회(trade and development committee) 개최
SACU-Mercosur PTA	SACU,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2016-04-01	MERCUSOR 2008년 12월 15일 서명 SACU 2009년 4월 3일 서명
AfCFTA(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아프리카연합(AU) 55개 회원국	2018-03-21	2019-05-30	2021년 1월 1일 공식 시행 하였으며, 2023년 5월 기준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 서명 완료

〈자료원 : DTI 남아공 산업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SACU-India PTA	인도	협상 진행 중	

TFTA(Tripartite FTA)	SADC, EAC(East African Community),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총 26개국	26개국 중 22개국 서명 완료	남아공은 협정 서명 후 국내 비준 완료
----------------------	---	-------------------	-----------------------

〈자료원 : DTI 남아공 산업부〉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73181543	볼트(Bolts with hexagon heads of iron or steel)	세이프가드(규제중)	전세계	○ 부과기간 : 2021.12.10 ~ 2024.12.9	○ 판정결과 · 2021.12.10~2022.12.9 : 31.8% · 2022.12.10~2023.12.9 : 30.8% · 2023.12.10~2024.12.9 : 29.8%
2	73181539	철강제 육각 스크류 (Screws fully threaded with hexagon heads made of steel)	세이프가드(규제중)	전세계	○ 부과기간 : 2018.8.3 ~ 2024.8.1	○ 판정결과 · 2021.8.2~2022.8.1 : 35.6% · 2022.8.2~2023.8.1 : 30.6% · 2023.8.2~2024.8.1 : 25.61% * 2021.7.26 : 규제연장 결정
3	73181541,73181542,73181630	철강제 조임나사 (Threaded fasteners of iron or steel)	세이프가드(규제중)	전세계	○ 부과기간 : 2023.7.24 ~ 2026.7.23	○ 판정결과 · 1년차 (2023.7.24 ~ 2024.7.23) : 48.04% · 2년차(2024.7.24 ~ 2025.7.23) : 46.04% · 3년차 (2025.7.24 ~ 2026.7.23) : 44.04%
4	39076190,3907699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terephthalate)	반덤핑(규제중)	한국, 인도, 대만	○ 부과기간 : 2006.5.30 ~ 2027.9.8	○ 판정결과 · 한국 : 19.7% · 인도 : 54.1% · 대만 : 75% * '22.9.9 : 일몰 재심결과 조치 5년 연장 결정

수입금지품목

남아공 정부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국내 주요산업(섬유, 기계, 자동차, 플라스틱 산업 등) 보호 등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였으며 남아공 국제통상행정위원회(ITAC, www.itac.org.za)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선적 2주 전에 ITA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3일이면 수입면허가 발급된다. 수입면허는 발급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유효하다.

- 중고품: 국내산업 보호
- 폐기물, 스크랩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
- 모조품 / 가품: 국내산업 보호
- 신품 압축타이어: 안전기준
- 총기/무기: 국민안전
- 사형성 도박기기: 사회적 질서 유지
- 기타 유해물질 :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 몬트리올 의정서, 불법 마약 제조 물질 -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조치
- 안전기준 미달품목: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보건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자동차와 중고 부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을 이유로 좌측 핸들 자동차의 수입도 금지된다. 남아공 정부는 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육성계획(ADPD: Auto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을 시행하며 남아공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관세 혜택을 부과하고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남아공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남아공 표준청인 SABS(South Africa Bureau of Standard)로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동 기관 홈페이지(www.sabs.co.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BS는 표시제도의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고 품질검사 등의 감독을 하는데, 안전 및 전기기기 관련 규격 외에 일반적인 인증마크 표시에 대한 강제적인 의무는 없다. 2008년 필수규격규제기관법에 근거하여 SABS 산하기관인 필수규격규제기관(NRCS: 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s, www.nrsc.org.za)이 설립되었다. 그 외 세부적인 품목에 따라 남아공 보건의료기기규제이사회(Sahpra), 남아공 통신규제기관(Icasa) 등 별도 인증담당기관이 존재한다.

1) 전기안전기기

인증은 자유 선택이나 전기안전기기와 관련한 규격은 강제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IT기기 등 전기안전기기의 경우 NRCS로 성적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LoA: Letter of Authority)을 득해야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하다. LoA 신청자는 반드시 남아공 현지에서 등록된 법인 또는 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국가가 인정된 시험소 또는 IECCE CB(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전기 주전자, 다리미, 스토브, 냉장고 등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조명기기, 전동기기, 드릴, 연마기, 전선, 코드, 변압기, 백열등, 형광등, 플러그 등이다.

2) 의료기기

기존 의약품규제위원회(MCC: Medicines Control Council)를 대체하고 의약품 외에도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 등을 규제하기 위해 남아공 보건의료기기규제이사회(Sahpra: South African Health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 www.sahpra.org.za)가 설립되었다. 관련 규제는 크게 남아공에 거주하는 대행인 선임, 의료기기 분류, 등록, 면허증 허가, 감사, 사후관리점검, 임상시험, 광고 등으로 나뉜다. 의료기기의 설계와 사용 목적에 따라 A~D등급으로 품목이 분류되며 해당 품목군에 따라 인증 시 필요 서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료기기 등록 소요시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년이라고 하나, 통상적으로 약 3~5년이 소요된다.

3) 유무선 통신

남아공 통신규제기관(Icasa, 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 www.icasa.org.za)는 통신, 방송, 우편사업 등에 관한 규제 및 인증업무를 담당한다. 모든 유·무선통신 장비는 전기통신법(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5)에 따라 Icasa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 성적서, 기기 사진, 매뉴얼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4) 식품

남아공에서 생산하는 식품은 SABS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수입식품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다. 단, 식물 및 그 생산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보건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와 국립식물보호기구에서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수적이다. 식물 및 식물 생산품은 해당 기관에서 인증한 검역서비스 센터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지참해야 현지 반입이 가능하다.

5) 화장품

필수로 요구되는 인증제도는 없고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며 동종업계 경쟁업체들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이다. 세계적인 인증기관을 통해 ISO 22716(국제화장품 GMP)에 부합하는 제품임을 인증받는 것이 권고된다.

TBT

1) BBBEE

남아공 정부는 1994년 민주정부 수립 이전 인종차별정책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역사적 소외집단인 흑인, 인도인, 혼혈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흑인경제육성정책(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해당 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담은 포괄적 흑인 경제육성법(BBBEE: 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이 2004년 공표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권, 경영권, 기술향상, 기업 및 공급자 개발 등 5개 요소 충족 정도를 평가하여 각 사업체에 대해 점수가 부과된다. 남아공의 정부입찰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나 BBBEE의 내용이 대폭 반영된 정부입찰법에 따르기 때문에 흑인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어 사실상 흑인기업 외에는 정부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7년 개정된 우대구매규칙(Preferential Procurement Regulations)는 산업군에 따라 현지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 사업이나 학업 따위의 일을 시작함.

2) 통관 애로

남아공 항만 노후화, 인력 부족 등에 따라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편이다. 또한 세관 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 수입쿼터

농산물과 섬유류 등에 대해 관세쿼터가 적용된다. 농산물의 경우 70%의 쿼터는 이전 수입자, 20%는 중소기업 및 신규자, 나머지

10%는 BBEE 관련자에게 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쿼터 하의 관세율이 일반관세율보다 오히려 높아 관세쿼터 사용률이 높지 않다.

4) 에너지효율 라벨링

NRCS는 2014년 11월 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가전제품들은 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효율 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율, 소음을, 저장공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5) 식품 라벨링

남아공 내로 수입, 유통되는 식품은 모두 식품 라벨링 및 광고와 관련된 법률(Proposed Regulation R429,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에 의거하여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 라벨링 상의 정보는 영어 또는 남아공 공식 언어 중 하나로 기재되어야 하며 제품명, 용량, 제조자/생산자/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보관방법, 영양정보, 유통기한 등이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6)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유전자 변형 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남아공 보건부에서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공에서 유통되는 모든 생명공학제품은 제품라벨에 “이 제품은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생산되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해당 GMO 식품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에서 정한 적절한 라벨링 관련 문구 없이는 생산, 공급, 수입, 포장 금지된다. GMO 함 유물질이 5% 미만일 경우 일부 GMO 라벨링 규제가 완화 적용될 수 있다.

- 5% 이상 GMO 식품을 포함한 경우: Contains GMO
- 해당 식품이 유전자 변형 식품에서 직접 추출, 생산되었고 어떠한 테스트도 필요가 없는 경우: Produced using genetic modification
- 해당 GMO 물질의 실험분석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May contain GMOs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현황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각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높은 관세장벽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오고 있다.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수입상품의 95.1%에 대해 관세 양허안을 제출한바 있다. 현재 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은 39%이며, 실행관세율은 8.8%를 적용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제조업 육성, 고용 창출 등을 목표로 특정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보호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국내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해 인상했던 가금류(whole bird) 실행 관세율 2022년 8월, 식품 물가 안정 목적으로 12개월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 관세 납부

세관은 수입신고 서류를 기반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물품별 특별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지정 은행 및 남아공 국세청 등을 통해 결제 가능하며 관세 지불 후 수입신고서에 통관 스탬프가 발급된다. 관세 관련 상세 정보는 남아공 국세청 (www.sars.gov.za) 홈페이지 Customs and Excise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남아공 관세율은 제품의 HS Code를 가지고 있으면 관세청인 SAR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율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https://www.sars.gov.za/wp-content/uploads/Legal/SCEA1964/LAPD-LPrim-Tariff-2012-04-Schedule-No-1-Part-1-Chapters-1-to-99.pdf> 에 접속한다.
- 2) 관세율표를 pdf 파일로 다운 받는다.(다운 받지 않고 바로 검색도 가능)
- 3) ctrl+f 를 누르고 원하는 제품의 HS코드 첫 네자리를 검색한다.
- 4) Rate of Duty 중 한국은 General에 속하기 때문에 General 열에 있는 관세를 확인하면 된다.

관세율은 1~2개월마다 업데이트되므로 필요한 때에 확인하는 편이 좋다.

관세 변경 내역은 남아공 관세청 홈페이지(Legal Counsel - Secondary Legislation - Tariff Amendments)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년 변경 내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sars.gov.za/legal-counsel/secondary-legislation/tariff-amendments/tariff-amendments-2023/>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약 3,000km에 달하는 남아공 해안가를 따라 Richards Bay, Durban, East London, Ngqura, Port Elizabeth, Mossel Bay, Cape Town, Saldanha 등 8개의 주요 항구가 포진되어 있다. 그 중 더반(Durban)항은 남아공 경제 도시 요하네스버그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한 최대 항구로 컨테이너 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제2의 항구인 케이프타운(Cape Town)은 남미와 극동 지역과의 물류 허브 터미널로, 과일, 포도주 및 채소류 수출에 특화되어 있고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와의 화물이 증가하며 환적화물을 위한 터미널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발한 화물들의 대부분은 더반이나 케이프타운 항구를 통해 들어와 처리되고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남아공 최대 항구인 더반항은 남아공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60%를 처리하고 있다. 2021년 더반항의 컨테이너 정박 용량은 약 400만 TEU를 기록했으며, 더반항 증축 프로젝트 시행으로 2023년에는 연간 400만 TEU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프타운 터미널은 연간 3161척의 선박을 취급하고 있는데, 총 톤수는 4450만1297 톤에 달한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남아공은 요하네스버그(OR Tambo), 케이프타운(Cape Town), 더반(King Shaka) 3개 도시에 국제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에는 OR Tambo 외에 Lanseria 공항도 위치하고 있는데, 국내선이 주로 운영되나 인근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국제선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 남아공 간 직항 노선은 운행되고 있지 않으나 두바이, 도하 등지를 경유한 노선을 활용하면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더반 국제공항을 통해 입출국이 가능하다.

○ 주요 공항 물동량: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OR Tambo 국제공항은 남아공 최대 공항으로 연간 2100만 명의 탑승객을 처리하고 있다. 매주 43개 항공사의 4076대의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으며, 물동량은 연간 65만 톤에 달한다. 2010년에 오픈한 더반 국제공항(King Shaka)은 연간 750만 명의 탑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주요 행사들이 개최되는 더반 도시 특성에 따라 행사 참가객들의 더반 공항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공항은 2022-2023년 국제여행객 수가 처음으로 코로나 전 방문객수를 따라 잡았으며 (217만 4073명) 총 공항 이용객 수는 825만8452명 이다.

3) 유의사항

최근 더반항의 적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물동량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노후된 인프라, 불법 수입 단속 강화에 따른 억류 컨테이너의 증가, 인력부족 등 세관 행정의 비효율성 등에도 기인한다. 기상 변화에도 취약한 편이라 태풍, 폭우 등에 항구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편이다. 선박이 도착하고 3일 후부터는 초과 정박 비용이 발생하며 화물 처리 시 상품의 영문 라벨링 등 남아공 정부가 요구하는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4) 기타 참고사항

XPS Service, United Parcel Service 등 주요 운송 및 통관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남아공까지의 해상 운송비용은 코로나 사태 이전 20ft 컨테이너 1FCL 기준 보통 2500달러 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3630달러까지 인상된 상황이며 평균 운송 소요기간은 30~45일이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남아공 국제청(Sars: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이 통관 절차를 담당한다. 남아공의 일반 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수입자 등록 및 물품별 표준 및 인증요건 구비→수입신고→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남아공 정부는 항공

화물의 경우 최대 24시간,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해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1) 수입신고 전

남아공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아공 국세청에 수입자로 등록하여 세관 번호(Customs Code Number)를 받아야 한다. 수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에 DA185-Application form, DA185.4A1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남아공 국세청 사이트(<https://www.sars.gov.za/customs-and-excise/registration-licensing-and-accreditation/import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입규제목록 해당 여부에 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수입신고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도착통지(Arrival Note)되며 통상 7일 이내에 해당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완료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관은 상품을 지정보세창고에 예치하고 관련 비용을 산출한다. 상품이 3개월 이내에 신고되지 않으면 당국은 그 상품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통관을 위해서는 우선 영어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원산지 규정 증명서 Certificate of rules of origin(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리베이트 허가증 Rebate Permit(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은행 지불보증 수표(관련 세금 포함) Payment, by a bank guaranteed cheque, for all applicable duties and taxes
- 수입허가인증서 Letter of Authority(LOA)(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3) 심사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되면 통관지 세관은 부정신고 및 신고오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 건을 우선 선별하여 수입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심사한다. 또한 도착물품과 상업송장 상 물품의 동일성 여부 확인, 위험물품 적발 등을 위한 물품 검사를 진행하는데, 수입물품의 50% 정도를 육안으로 검사하며 일부는 랜덤으로 X-ray 검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4)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수입 신고 시 등록된 수입자의 은행 계좌로부터 관세 등이 납부된다. 세관 신고 과정에서 상업송장 상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세 납부 후 세관 시스템을 통해 반출 통보가 있을 경우 반출이 가능하다. 수입신고서류는 신고 수리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상품은 별도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통관 서류 준비 시 사전에 필요 조치를 취한 후 작성해야 한다.

1) 동물

산 동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당국의 확인을 받은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 애완용 고양이나 강아지의 경우 예방접종, 마이크로칩 삽입이 필수이며 격리기간도 엄수해야 한다.

2) 식품

일반적으로 해당 관청인 남아공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로부터 수입식품 허가서와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존품의 경우에는 상품 표시 및 포장 규정(라벨링 규정 준수 필수 - ▲제품명 ▲제조·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주소 ▲식품 성분 및 영양 정보 ▲유통기한 ▲용량 ▲보관 방법 ▲원산지 표기)을 준수해야 한다.

3) 음료수

알코올이 없는 음료수는 Soft Drinks Regulations를, 알코올음료의 경우에는 Wine, Other Fermented Beverages and Spirits Act의 적용을 받는다.

4) 화장품 및 소독제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를 적용받고, 라벨링 규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5) 화학물질

Hazardous Substances Act의 적용을 받으며, 살충제의 경우에는 남아공 외의 지역에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특별한 라벨링 규정 적용을 받는다.

6) 전시물품

(수출 시) 한국의 수출대행자(Shipping Agent)와 현지 통관대행자(Clearing Agent)에 동 제품이 남아공 내에서 전시 목적으로 단기간만 체류할 제품임을 사전에 알리고 수출자 명으로 현지 통관대행자 혹은 에이전트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통관절차, 수입자로의 운송을 위임한다는 레터를 제출해야한다.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Carnet)의 발급 및 제출이 필요한데, 이는 서울, 부산, 대구,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발급이 가능하다. 수출 시 제출하는 Commercial Invoice 상에 HS Code, 제품 일련번호 등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재수출 시 환불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PP-Provisional Payment) 납부하면 된다.

(재수출 시) ATA Carnet Holder(무관세 임시통관증서 소유자: 초기 수출자)가 직접 재수출하여야 한다. 전시목적의 품목이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6개월이 지나기 전 사전에 남아공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수출하려는 물품이 전시 목적으로 수입했던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무관세 임시통관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재수출 후 가지급금 환불을 신청하고 수령하면 된다.

그 밖에 Weight Measures Act에 따라 수많은 상품이 중량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상품의 표시뿐만 아니라 특별한 단위의 포장 등에도 적용된다.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o United Parcel Service

주소	Unit C, Brussels Road, Spartan Ext2, kempston park, Johannesburg
전화번호	(27) 11-922-9200
이메일	zacustomerservice@ups.com
홈페이지	http://www.ups.com

o Crossroads

주소	118 Setter Rd, Commercia, Midrand
전화번호	(27) 11-651-8800
이메일	businessdevelopment@crossroads.co.za
홈페이지	http://www.crossroads.co.za

o Shippler

주소	Clearwater office park, Building 5, Cnr Millenium rd & Christiaan de Wet rd, Clearwater, Roodepoort, 1709
전화번호	(27) 10-006-5575
이메일	support@shippler.co.za
홈페이지	https://www.shippler.co.za

<자료원 :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남아공은 경제발전, 높은 실업률 해소, 기술 이전 등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어서 과거 동안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 및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 남아공 정부는 은행, 방송 및 통신, 그리고 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남아공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제한된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Registrar of Deposit-Taking Institution의 승인이 필요하며, 49%를 초과하게 되면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방송 분야는 현재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20%로 제한돼 있다. 남아공에서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납부 100% 본국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남아공 비거주자들의 지분이 75% 이상이고(or가 아닌 and 조건) 남아공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보험 분야의 경우 Insurance Act of 2017 법률에 따라 Prudential Authority의 허가 없이는 보험 사업 수행을 금지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남아공 정부는 투자기업에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투자 건별로 세금면제, 현금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세금면제의 경우, 법인세 특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된다.

금융지원은 남아공 IDC(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해 운영되는데, IDC는 남아공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업에 대해 장기 저금리의 특혜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 투자인센티브는 아래와 같다.

1) Black Industrialists Scheme

제조부문 흑인기업가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며, 지속적 경제성장과 산업화 촉진이 목적인 동 제도는 설비 투자액의 30%~50%, 최대 5,000만 랜드까지 재정지원을 한다.

2) Support Programme for Industrial Innovation

제품 및 생산 공정에 대한 혁신을 진흥하며, 초기 리서치 단계에서부터 프로토타입 제품의 생산까지 출장비용, 재료, 설비, 전문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프로토타입, 제품 테스트, 라이선스, 품질 보증, 특허, 하도급계약, 컨설팅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 신기업의 규모에 따라 2가지 세분화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며,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200만 랜드,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 500만 랜드까지 지원된다.

3)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For Industry Program (THRIP)

남아공 내 인력 및 기술개발을 위해 남아공 정부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과학 기술분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로 남아공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외투기업은 NRF와 공동 출자하여 과학 기술분야 연구가 가능하다. 동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적자원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남아공 정부(NRF)와 외투기업의 출자 비율이 1:2일 경우 3년간 최대 800만 랜드 규모의 재정지원이 된다.

4) Export Marketing and Investment Assistance

남아공 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수출판로 개척 및 신규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진흥 프로그램으로 남아공 내 제조기업, 국내 생산 제품 무역에이전트 및 산업·수출협의회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총 3가지 지원 항목이 존재한다. 해외전시회 출품의 경우 최대 4만 5천 랜드 규모 전시장 임차 및 부스설치, 샘플운송, 통역원, 통신비, 식비, 왕복 항공임을 지원하며, 주요 시장 조사 및 FDI 유치의 경우 샘플운송, 왕복 항공임, 식비, 기타 마케팅 자료 구매 비용을, 그리고 사절단 유치의 경우 왕복 항공임, 식비, 전시장임차, 해외 특허등록비 연간 50% 혹은 최대 10만 랜드까지 지원한다.

5) Sector-Specific Assistance Scheme

산업발전과 수출 진흥 기관에 제공하는 비용 부담 인센티브로 신규 수출 기업화에 기여하는 수출협의회·산업공동체(Joint Action Group)·산업협회 등이 수혜 기관에 해당한다. 특정 기업체가 아닌 남아공 내 특정산업의 포괄적 해외시장진출 목적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컨설팅, 광고, 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6) Capital Projects Feasibility Programme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비용 부담 프로그램으로 남아공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외국계 기업이 동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할 경우 남아공 설립 업체와 파트너십이 체결되어야 한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유력한 가능성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수주 성공 시 전체 자재 중 50%, 전문 컨설팅 서비스 중 70%를 남아공 내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7)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rogramme

남아공 내 BEE 4등급 이상 설립 후 2년이 넘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 4%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설비투자 목적인 경우 신규 혹은 인 기업도 대출할 수 있다.

8) Clothing and Textile Competitiveness Improvement Programme

의류·섬유 제조 산업과 관련 생산원가·품질, 산업신뢰도와 혁신 역량 발전을 진흥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남아공 산업개발공사(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제공된다.

9) Global Business Services Incentives

재무·회계 컨설팅, 콜센터, 행정업무 대행 등 국외 기업의 비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서비스산업 진흥 제도로 실질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며, 직업군(Tier)을 3가지로 나눠 5년간 지원액과 승인조건에 차등을 둔다. 지원대상은 남아공 내 설립된 BEE인증 법인으로 국외기업의 경우 현지 BEE인증 업체와 합작투자 설립 필요하다.

10) Film and Television Incentive

현지 방송제작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남아공 내 촬영 시 발생한 비용과 남아공 기업을 통한 후반 제작 비용 중 지원 가능 비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지원 가능 비목에 한하여 촬영비용의 경우 소요예산의 20%, 후반제작비용의 경우 소요예산의 5%를 지원한다.

11) Critical Infrastructure Program(CIP)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등 핵심 사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제공되는데, 5천만 랜드까지 투자 비용의 10~30%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제도의 목적은 사회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남아공 산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 등이며, 지원대상은 사회 인프라 건설 관련 직접비, 인건비, 소요자재, 신규 자본재 구입 등이다.

12) Automotive Investment Scheme

신규 승용차 모델 및 기존 제조 설비에 대한 확장 투자 및 자동차 금형과 같은 주요 제조 부품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자동차 총 생산량 증대와 지속적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간 5만 대의 승용차를 제조하고 있거나, 보조금 수령 후 3년 내 5만 대 생산 입증 가능한 기업의 경우 투자 설비의 20% 비과세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청 시점에 국내·외 OEM에 대한 공급계약을 보유하고 보조금 수령 1년 후 전년 대비 25% 혹은 천만 랜드 매출증대 입증 가능한 기업의 경우 투자 설비의 25% 비과세 보조금을 지원한다.

13) People-Carrier Automotive Incentive Scheme

승합차 부문 기존·신규 제조 설비 확장 투자 및 자동차 금형과 같은 주요 부품 제조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목적은 일반 Automotive Investment Scheme과 동일하며, 비과세 보조금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14) Section 12I Tax Allowance Incentive

최소자산투자(Minimum Qualifying Assets) 조건 부합 시 투자수당(Investment Allowance)과 근로자 연수수당(Training Allowance)의 혜택이 지원된다.

15) Aquaculture Development Enhancement Programme

남아공 내 수산물 양식업 진흥을 위한 제도로 양어·양식장 및 이후 최종 공정 시설과 부수적 투자에 대해 신규·확장 투자를 지원하며, 양식업 전반, 공정 시설, R&D, 사료 제조 공장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랜드까지 지원한다.

16) Strategic Partnership Programme

시장 선도 기업에 공급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도기업과 상무부가 '공급자 개발 이니셔티브'를 형성하며, 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설비투자, 제품서비스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년간 연간 최소 매출 1억 랜드 달성 남아공 기업이나 회원사를 최소 5개사 보유하고 있는 산업 협회로 선도기업과 상무부가 분담 투자하여 최대 연간 1천5백만 랜드까지 지원한다.

제한 및 금지(업종)

남아공 정부는 은행 및 방송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남아공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제한을 받는다.

- 은행 분야
 -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제한되어 있음
 - 외국인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Registrar of Deposit-Tracking Institution의 승인 필요
 -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의 승인 필요
- 방송 분야
 -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20%로 제한되어 있음
- 보험 분야
 - Insurance Act of 2017 법률에 따라 Prudential Authority의 허가 필요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남아공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산업개발지역(Industrial Development Zone: IDZ)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IDZ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항 또는 항구 인접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잘 갖추어진 사회 인프라, 면세혜택 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투자 유망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IDZ 운영 주무부처는 남아공 산업 통상부이며, IDZ 입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IDZ는 세관 통제구역(Customs Controlled Area)을 통해 입주 기업에 통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무관세 혜택, 남아공 현지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혜택 등도 부여된다. 현재 남아공에서 승인된 IDZ는 4개인데, Port Elizabeth, East London, Richards Bay, Johannesburg 등에 위치한다.

4개의 IDZ가 조성된 이후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산업개발지역이 공항 및 항만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단점을 보완하고 확대 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 특별경제지구(SEZ: Special Economic Zone)가 설립되었다. 특별 경제지구는 산업 및 수출단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단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녹색분야' 산업을 중점유치하고 자유무역지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단지

○ Coega IDZ

규모	11,000ha
위치	Coega Development Corporation, Coega SEZ Business Centre, Corner Alcyon Road & Zibuko Street, Zone 1 Coeza SEZ, Prot Elizabeth
임차료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27- 41 403 0400 ○ 이메일: andrea.vonholdt@coega.co.za ○ 홈페이지: www.coega.co.za
비고	남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이자 남아공 최초로 2001년에 설립

○ East London IDZ

규모	1,500ha
위치	Lower Chester Road, Sunnyridge, East London
임차료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27- 43 702 8200 ○ 이메일: info@elidz.co.za ○ 홈페이지: www.elidz.co.za
비고	자동차 산업, 농가공 및 수경 재배 등에 적합

○ Richards Bay IDZ

규모	370ha
위치	RBIDZ Office Complex (Old Bayside), 4 Harbour Arterial, Alton, Richards Bays
임차료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27- 35 797 2600 ○ 이메일: info@rbidz.co.za ○ 홈페이지: www.rbidz.co.za
비고	철강, 화학, 식음료 가공 주력

○ ORTIA IDZ

규모	275ha
위치	OR Tambo International Airport Special Economic Zone, Jewellery Manufacturing Precinct, Superblock Building, Cnr of Bonaero Drive & Cote D'Azure Avenue, Bonaero Park
임차료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27- 10 023 8510 (Reception) / +27- 10 023 7602 (Help Desk) ○ 이메일: info@gidz.co.za ○ 홈페이지: http://www.gidz.co.za/
비고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인 OR Tambo 공항 근처에 있어 물류 용이

○ Dube TradePort SEZ

규모	3,800ha
위치	7 Umsinsi Junction, Dube City, La Mercy, Kwazulu-Natal
임차료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27- 32 814 0000 ○ 이메일: info@dubetradeport.co.za ○ 홈페이지: www.dubetradeport.co.za

비고	제조업, 자동차, 전자기기, 패션 산업에 주력하며, Dube AgriZone은 미래 농업 시설을 갖추고 있음.
----	---

◦ Maluti-A-Phofung SEZ

규모	1,000ha
위치	Cnr. Amanda and De Lange Streets, Tshiame, Harrismith
임차료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27- 51 400 0800 ○ 이메일: info@mapsez.co.za ○ 홈페이지: www.mapsez.co.za
비고	요하네스버그와 더반 사이에 위치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 모든 제조업 및 경공업에 적합

◦ Saldanha Bay IDZ

규모	330ha
위치	24 Main Road, Saldanha Bay, Saldanha
임차료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27- 22 714 0206 ○ 이메일: info@sbidz.co.za ○ 홈페이지: www.sbidz.co.za
비고	석유, 가스, 선체 하자 보수, 물류 서비스에 특화

◦ Musina-Makhado SEZ

규모	7262ha
위치	Enterprise Development House, Main Road, Lebowakgomo, Limpopo
임차료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27- 67 411 9192 ○ 이메일: t.makuya@mmsez.co.za ○ 홈페이지: https://mmsez.co.za/
비고	Musina는 경공업과 농가공업, 석유화학, Makhado는 야금 및 광업에 주력

〈자료원 : 남아공 DTI〉

주요 지역별 여건

◦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

웨스턴케이프 지역 경제 발전의 특징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산업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몇몇 주요 분야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며 전 분야에 걸쳐 틈새시장이 발달해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 유치 프로젝트 또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남아공의 수출 지향적인 산업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항구도시와 해안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수입관세의 인하와 지역 중공업의 기반이 되는 살다나 제철(Saldanha Steel)의 설립으로 이러한 추세가 가속되고 있다. 웨스턴케이프는 개방경제체제로 해외

무역이 이 지역 총생산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과일, 생선, 채소와 같은 1차산업 상품들이 전통적으로 웨스턴케이프의 수출을 주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공 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웨스턴케이프투자무역진흥청: 웨스턴케이프투자무역 진흥청(WESGRO)은 주요 개발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는 독립기관이다. 1982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발전해 만들어진 웨스턴케이프투자무역진흥청은 지역 내 경제 개발과 고용 창출의 촉진을 위해 1996년 주법 제3호에 의해 설립됐다.

○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

이스턴케이프는 주요 도시, 공항, 항만이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가 크게 발달해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곳 이스턴케이프에 남부 아프리카 지역 본부를 두고 있다. 남아공 주요 시장 중심부에서 멀리 않은 곳에 위치였으며 항공, 도로, 철도망 등의 현대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이 쉽다. 제조업 분야는 이미 상당 부분 세계 경제와 통합돼 있다. 일례로 120개 대규모 기업 중 절반 가까이 국제 기업과 관련돼 있으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은 생산의 25%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 이스턴케이프개발공사: 이스턴케이프개발공사(ECDC)는 경제 및 환경관광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공식 기관이다. 주 정부로부터 부분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 기업, 노동계로 구성된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스턴케이프개발공사는 정부부처, 회의소, 자치단체, 정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및 투자자들을 개발 및 지원한다.

○ 프리스테이트(Free State)

남아공 9개 주 중 세 번째로 면적이 큰 프리스테이트는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주 수도는 남아공의 사법수도이기도 한 블룸폰테인이다. 더반 항 및 이스턴런던 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우텡에서 불과 400km밖에 위치해 있다. 프리스테이트주는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금광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주요 경제활동으로 농업을 들 수 있으며 남아공의 식량 창고로도 알려져 있다. 연간 10만 톤의 채소와 4만 톤의 과일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 프리스테이트개발공사: 프리스테이트개발공사(FDC)는 경제 및 환경관광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공식기관이다. 부분적으로 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 기업, 노동계로 구성된 이사회에 보고한다. 프리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정부부처, 회의소, 자치단체, 정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및 투자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 하우텡(Gauteng)

남아공의 금융 중심지로 알려진 하우텡은 교통, 기술, 통신 산업이 발달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우텡주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한 비즈니스 관문이다.

하우텡은 전체 국토 면적의 불과 1.4%를 차지하는 9개 주 중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이지만 남아공 GDP의 38% 이상, 재정수익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하우텡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 GDP의 9%를 생산하고 있다.

○ 하우텡 성장개발청: 하우텡 성장개발청(GGDA)은 2012년 6월 1일 GEDA와 Blue IQ를 합병하여 만든 기관이다. GGDA에서는 경제 성장 및 개발 촉진 업무를 담당하여 하우텡주에 투자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 및 비즈니스 퍼밋 등 현지 및 외국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콰줄루나탈(KwaZulu-Natal)

콰줄루나탈 주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산업 개발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 것은 풍부한 천연자원 및 잘 발달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에 기인한다. 콰줄루나탈의 경제 활동은 주로 더반을 중심으로 한 에디크위니 메트로폴과 피터마리츠버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리차드 베이와 엠팡게니 지역, 레이디스미스와 에자케니 지역, 뉴캐슬와 마다데니 지역, 콰줄루나탈 남부 해안 지역도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 콰줄루나탈 무역투자진흥공사: 콰줄루나탈 무역투자공사(TIKZN)는 지역 내 전략적인 사업 발전 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림포포(Limpopo)

림포포주는 광업 활동이 다양하게 발달했으며 주 경제의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정부 서비스 부문 다음으로 주 경제를 이끌고 있다. 주요 광물자원으로는 백금(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석탄, 크롬, 철광석, 구리 등이 있다. 또 다른 주요 경제활동 분야로는 전력 발전을 들 수 있다. 특히 엘리스라스의 마팀바(Matimba) 전력발전소는 다양한 경제 주체의 협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남아공의 철강 기업인 이스코르(Iscor)는 용광로에 사용할 원료탄을 채광하고 있으며 저급 석탄은 판매를 하고 있다.

○ 림포포무역투자공사: 림포포 무역투자공사(TIL)는 주 정부의 공식 무역투자 진흥기관으로 1996년 9월에 설립됐다. 림포포 무역투자공사는 아프리카 내 신규 시장 개척 또는 해외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현지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는 한편 남아공의 림포포주와 기타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

◦ 음푸말랑가(Mpumalanga)

음푸말랑가는 비즈니스 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며 성장이 기대되는 주이다. 도로, 철도, 통신 인프라가 잘 정비돼 있으며 우수 교육기관에 의해 지원되는 준 숙련 노동력이 풍부하다. 선진화된 상업 및 금융 산업을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 밖에도 해외 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뛰어난 의료 및 사회문화 시설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 음푸말랑가 투자계획: 음푸말랑가 경제발전 에시전시(MEGA)는 음푸말랑가 주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무역 및 투자 촉진 그리고 잠재적 투자자들의 원활한 지역 이전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 노던케이프(Northern Cape)

노던케이프는 남아공 9개 주 중 면적이 가장 크며 국토의 30%를 차지한다. 남아공의 네 개의 다른 주뿐 아니라 대서양과 나미비아, 보츠와나와 접경하고 있는 노던케이프 서부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이상적인 관문이 되고 있다. 노던케이프 주 남쪽을 흐르는 오렌지 강은 건실한 농업 기반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 주정부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성장 촉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노스웨스트(North West)

노스웨스트주는 서쪽으로는 보츠와나, 동쪽으로는 경제의 원동력이자 산업의 중심지인 하우텡에 접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높은 수준의 관광업 및 농업이 발달해 있다. 현지 산업의 수익창출능력 향상, 지역 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자원과 관련된 국제시장 참여 등의 분야에서 투자기회가 무궁무진하다. BMW, 삼성, 네슬레, 하인츠, 화이어스톤 타이어, 보쉬 등 여러 국제 기업의 지역 본사가 이곳 노스웨스트에 있다.

◦ 노스웨스트투자청: 전문 투자진흥기관인 노스웨스트투자청은 투자자들이 비즈니스 설립하는 데에서 편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스웨스트투자청은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며, 적합한 사업장소를 물색하고, 사업 계획 수립 및 적절한 자금 지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인센티브 혜택, 비자 신청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공급업체 및 전문서비스 회사 등을 알선하고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GDP의 20% 가량을 점유하는 아프리카 최대 시장이며, 흑인 계층 소득 향상 등으로 많은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법적 제도적 장치도 잘 갖추어져 있어 투자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금, 백금족, 망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게는 유망 투자 대상국이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전력, 도로, 통신, 항만, 금융 시스템 등 사회 인프라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으며 높은 경제력과 지리적 이점, 효율적인 물류를 바탕으로 남부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거점국가이기도 하다. 유럽 미국과 시차가 크지 않고 EFTA, AGOA 등 유럽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소이다.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 수준의 경제 인프라와 활기 넘치는 이머징 마켓 및 낮은 인건비가 독특한 조화를 이루는 남아공은 최적의 기업 및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불안정한 전력 공급이 투자 매력도를 급감시키고 있어 안정적 전력 공급이 정부의 최대 과제이다. 이외에도 강성 노조로 인한 잦은 파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노동 생산성, 불안한 치안 및 범죄 등이 투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021년 대남아공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4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35% 대폭 증가했다. 해당 증가폭의 대부분은 남아공 인터넷 미디어 그룹 Naspers와 자회사인 네덜란드 투자기업 Prosus 간 기업 재구조화 목적의 주식 교환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를 이었다. 영국 기업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로 46억 달러를, 미국 기업이 그린필드 프로젝트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며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관련 FDI 유입도 활성화되면서 태양광 배터리 프로젝트로 10억 달러, 인프라 프로젝트 프로젝트로 3,400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남아공 FDI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5449.55	5124.99	3062.26	40948.1	9051.19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남아공은 대외 투자에 대해 개인은 연간 백만 랜드(약 5만2000달러), 기업은 연간 10억 랜드(약 5300만 달러)의 외부 유출 제한 등 외부 투자에 대한 일부 제약이 있다. 제한된 금액 이상 규모의 투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를 통해 외국인 대상 기업의 결권의 1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대외 투자는 주로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등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4076.11	3146.64	-1950.84	22.26	2571.43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누계 투자액은 약 3.4억 달러에 불과하다. 1995년 만델라 대통령 방한 당시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으나 투자 규모는 매우 낮다. 한국 대기업 등이 남아공에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2013년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투자액은 33만 달러로 전년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13	0	9,065	17	1,637
2022	8	3	1,151	10	727
2023	8	1	10,568	9	1,42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업종별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대부분을 점유한다. 남아공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대우, 현대중합상사 등 약 20개사 정도이며 주로 현지 법인이나 지사 형태로 진출해있다. 그 외 개인 사업자에 의한 소규모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 중이며 교민들은 주로 가발업, 식당,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1	0	7,080	0	0
제조업	9	0	257	9	257
도매 및 소매업	3	0	1,728	8	1,38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5	2	507	7	333
건설업	2	0	350	2	100
도매 및 소매업	1	1	294	1	29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6	0	9,924	7	79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	1	1	1
도매 및 소매업	1	0	643	1	63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지사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무역
모기업명	포스코대우

○ 삼성물산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지사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무역
모기업명	삼성물산

○ 삼성전자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가전/전자
모기업명	삼성전자

○ 제일기획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
모기업명	제일기획

○ 포스코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사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자원개발
모기업명	포스코

○ 무역보험공사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사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무역보험공사

○ 한국전력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전력발전
취급분야	전력발전
모기업명	한국전력

○ LG전자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가전, 전기/전자
모기업명	LG전자

○ M-TEC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케이블
모기업명	대한전선

○ 범한판토스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무역, 물류
모기업명	범한판토스

○ 삼성SDS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IT서비스
모기업명	삼성SDS

○ 한전KPS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전기공사업
취급분야	전기공사
모기업명	한전KPS

○ 효성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배전, 변압기
모기업명	효성그룹

○ 미진건설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법인
업종	건설
취급분야	건설
모기업명	미진건설

○ 파츠몰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파츠몰

○ 영산글로벌넷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무역, 자동차 품질검수
모기업명	영산

○ 현대종합상사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지사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선박, 기계, 플랜트, 자동차, 철강, 금속, 화학, 전기전자
모기업명	현대

○ 플라리스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
취급분야	종합
모기업명	플라리스

○ KC코트렐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법인
업종	에너지
취급분야	바이오메스
모기업명	KC코트렐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1973년 제정된 구 회사법은 변화하는 기업과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신 회사법(Company Act 71 of 2008)을 제정하게 됐다. 회사법 개정안(Companies Amendment Act 3 of 2011)도 제정되어 신 회사법과 동시에 시행됐다. 동 법의 시행은 모든 분야의 비즈니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으로 회사 등록청인 CIPRO는 CIPC로 통합됐으며 ‘사업구제(Business Rescue)’ 제도 등이 신설됐다. 회사법 규칙(Companies Regulations, 2011)이 제정돼 회사와 관련해 새로운 양식(form)과 절차들이 제정 및 시행됐다.

구 회사법 하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 회사법은 모든 개인 회사 회계사(auditor)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주식 공모회사(Public company)와 정부 소유의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만이 Audit committees를 임명 등 회계 감사의 투명성이 강화됐다.

개인기업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회계보고서를 자발적으로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점수제로 연간매출액, 고용인과 주주의 숫자, 채무의 범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750점이 넘는 기업만이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모든 주주가 이사인 경우 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일반 회계담당자의 감사를 받아도 된다.

현지 법인은 크게 영리 회사 및 비영리 회사로 구분된다.

지사

외국 회사가 남아공 내 자회사로 법인 설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회사 대신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본사 정관의 공증된 사본, 공증된 회사 등록증 사본 등과 더불어 지사 설립 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지사 설립을 할 수 있다. 지사 설립 등록증이 있어야 은행계좌 개설 및 사무실 임차 등이 가능하며, 지사를 설립한 경우 남아공 현지인을 이사로 임명할 필요는 없다. 회사등록청인 CIPC에 매년 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차보고서(annual return)'를 제출해야 한다. 2년 연속 연차보고서 미제출 시 지사 등록이 취소된다.

연락사무소

남아공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외국회사라도 현지 법인 형태가 아닌 연락사무소(Local branch of a foreign company) 설립이 가능하나, 은행 및 보험업은 연락사무소 개설이 불가능하다. 연락사무소는 남아공 회사법 제32조 외국기업(External Company)의 적용을 받으며, 남아공에 연락사무소 개설일 21일 이내에 남아공 회사등록청(CIPC)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투자진출시 유의사항</p>	<p>1) 투자위험도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경제 선도국으로 대륙 내 타 아프리카 국가들 대비 안정적인 정치,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진한 경제성장, 기록적인 실업률, 높은 국가부채 등으로 남아공 경제는 위축되어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사 3사 모두 남아공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Junk)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Ease of Doing Business에 따르면 남아공은 84위로 그리스, 몽골, 쿠웨이트 등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p> <p>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남아공 투자진출형태별 회사는 대표적으로 현지법인,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남아공에서는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부동산, 주식 등 남아공 내 자산을 구입할 수 있고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남아공 회사등록청(CIPC)이 관련 절차 및 규제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개인기업이 회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남아공 Companies Act Public Interest Score에 따라 연간매출액, 고용인과 주주의 숫자, 채무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점수를 책정하고, 350점이 넘는 기업만이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을 의무를 가진다. 주식회사는 남아공에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 대부분의 등록 형태로, 비상장회사는 일반에 주식 또는 채권공모를 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에 제한이 있다. 투자진출형태를 막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남아공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흑인경제육성법(BBBEE)를 따라야 한다. 동 법은 기업들의 흑인 경제육성 기여도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각 기업의 BBBEE 등급이 결정된다. BBBEE 등급은 정부 조달 및 인허가 취득을 위해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 외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요건이 까다롭고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BBBEE법에 의거하여 현지 고용이 더욱 중요시되며 외국인 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지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p> <p>3) 분쟁해결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 투자 확대를 위해 2018년 Invest SA One Stop Shop을 런칭했다. 현지 투자 진출 시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와 기업 및 개인의 요구를 원스톱으로 맞춤 지원하며, 투자자들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는 invests.gov.za이며 요하네스버그에는 샌톤 지역에서 오피스가 운영되고 있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명의 주주가 필요하며, 반듯이 회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회계 위원회는 최소한 3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주식회사도 일반 대중으로부터 주식을 공모하지만, 상장된 주식회사도 있고, 비상장 주식회사도 있다. 또한 회사명 뒤에 LTD를 붙이게 되어 있다.

유한책임회사

개인 회사에 속하나 다른 개인 회사와의 차이점은 현직 이사나 전직 이사 모두가 회사와 함께 개별적 또는 연대적으로 임기 중 발생한 회사의 계약적 채무나 책임에 대해서 거의 무한 책임을 진다. 유한 책임 회사 설립은 건축사,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인이 소속된 협회 규정에 의해, 회사 멤버인 주주의 개인적 책임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된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명 뒤에 INC를 붙여 구별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사의 경우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채권발행이나 상장 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어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기타

○ 비영리 회사: 설립 시 정관에 반드시 회사 설립 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것이 종교, 문화, 친목, 사교 등 어떤 목적이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제한이 없다. 비영리 회사는 반드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3명의 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 동족회사: 남아공에 투자 진출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업형태이며 동족회사법(Close Corporation)에 의해 관리된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회사법(Companies Act)의 복잡한 적용조건을 완화해주면서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다. 최대 10명 이내 소유해야 하며 직접사업에 참여하는 회사에 적합하다. 그러나 세금 및 외환관리상의 불이익이 있어 외국인투자 형태로는 부적합할 수 있다. 동족회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회계사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1년 5월 1일부터 더 이상 동족회사의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 설립된 동족회사는 그대로 존속한다. 신회사법은 기존의 동족회사를 개인회사(Private Company 또는 Pty Ltd(개인법인체))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동족회사를 개인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동족회사를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Office badger

전화번호	+27 10-140-6529
주소	1 Wedgewood Link Road, Bryanston
홈페이지	www.officebadger.co.za
이메일	info@officebadger.co.z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Lloyd Viljoen

전화번호	+27 11-787-5723
주소	1st Floor, Randpark building, 20 Dover Street, Ferndale, Randburg
홈페이지	www.lloydviljoen.co.za
이메일	info@lloyedviljoen.co.z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Cliffe Dekker Hofmeyr

전화번호	+27 11-562-1000
주소	1 Protea Place, Sandton, Johannesburg
홈페이지	www.cliffedekkerhofmeyr.com
이메일	jhb@cdh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남아공의 외환관리는 관련 법령(The Currency & Exchange Act 및 The Exchange Control Regulations)에 근거하여, 중앙은행의 외환 관리부(EXCON)에서 재무부를 대신해 모든 외환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1961년도에 자본 도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외환통제제도는 현재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규제를 내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회계연도에 미신고 세금, 미허가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인, 법인에 대해 형사상의 기소, 처벌을 면제해주는 자진공개 프로그램(VDP,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시행했으며, 2012년 10월부터 영구적으로 제도화했다. 외환거래는 공인 달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일반인들은 이들 달러를 통해 외환을 사고팔 수 있다.

외환 규제

남아공의 외환 규제는 중앙은행의 외환관리부(EXCON)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외환 규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남아공 국적의 기업이나 거주자는 수출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취득한 외환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 달러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 수출대금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남아공으로 반입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EXCON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CFC Account로 불리는 외화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외국기업의 주식투자는 제한이 없으나 과실송금이나 배당소득의 송금을 위해서는 비거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송금된 자금을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데 5만 랜드 이상 남아공으로 송금되는 자금을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밝혀야 한다.

- 수입대금은 수입자유화 품목 또는 수입허가를 이미 취득한 품목에 대해 자유롭게 외화지불이 가능하나, 기술 도입 로열티, 특허 사용료 등의 지불은 EXCON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기간도 8~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남아공 거주자가 해외여행 시 1년 동안 반출할 수 있는 외화의 한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 운영하고 있는데, 공인 달러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의 한해 12세 이하는 5만 랜드, 12세 이상은 1인당 16만 랜드까지 허용하고 있다. 사전 허가 없이 여행 시 현금으로는 한 번에 25,000랜드까지만 반출·반입할 수 있다. 외국 투자의 경우, 1년에 1천만 랜드까지 가능하며 이는 18세 이상의 납세에 결격사유가 없는 과세 대상자에 한한다. 남아공 거주자가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린 돈의 상황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 경우 심사기간이 약 2주에서 3주간 소요된다. 배당금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은 승인이 필요 없다. 청산이나 폐업 등에 따른 배당금 지불은 사실 입증 후 송금할 수 있다.

- 75% 이상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남아공 기업은 남아공 대부기업들로부터 차입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100% 외국인 지분 소유기업은 유효자본금(납입자본금, 우선주, 미배당이익, 주주들의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핵심주주들의 거래신용 등) 이내로 차입이 제한된다. 5만 랜드 이상을 국외로 보내려는 기업은 Form A를 작성, 자본의 출처 등을 밝혀야 한다.

- 국내 제조기업과는 관계없는 로열티, 라이선스 및 특허료 등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제조업과 관련된 로열티 등은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관리비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 경상계정 지불은 판매액, 이익, 구매액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청구서와 함께 공인 달러를 통하여 지불할 수 있다.

위 규제에 외환 공인 달러로 인정된 은행들은 다음과 같다.

- ABSA Bank Limited
- Access Bank (South Africa) Limited
- Albaraka Bank Limited

- Bank of China 요하네스버그 지점
- Bank of Communications Co. Limited 요하네스버그 지점
- Bank of Taiwan South Africa Branch
- Bidvest Bank Limited
- BNP Paribas SA South Africa Branch
- Capitec Bank Limited
- China Construction Bank 요하네스버그 지점
- Citibank, N.A., South Africa
- Deutsche Bank AG 요하네스버그 지점
- Discovery Bank Limited
- FirstRand Bank Limited
- Goldman Sachs International Bank 요하네스버그 지점
- Habib Overseas Bank Limited
- HBZ Bank Limited
- HSBC Bank plc, 요하네스버그 지점
- Investec Bank Limited
- JPMorgan Chase Bank, 요하네스버그 지점
- Nedbank Limited
- Sasfin Bank Limited
- Standard Chartered Bank, 요하네스버그 지점
- State Bank of India
- The Standard Bank of South Africa Limited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 달러=19.29 랜드 (2023년 5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26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081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32
비고	남아공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른 산업별 초임 평균으로 학력과는 무관. 남아공 단일 최저임금법은 업종, 지역, 연령 등 구분 없이 R 25.42(1757 원/2023년 5월 기준환율)				

<자료원 : 남아공 통계청, 노동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서면으로 고용에 관련 일정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름, 주소, 직위 또는 일에 대한 설명, 근무 장소, 근무 시작일, 근무일 및 근무시간, 월급 또는 주급, 초과근무에 관한 규정, 급여 지급 방법, 휴가, 계약 종료일 및 고용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 등이다. 고용 계약서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 회사 규칙 등을 함께 서명받는 것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어 좋다.

근로시간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45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최대 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일주일을 통합해 4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시간을 일한 뒤에는 반드시 60분의 식사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60분의 식사시간을 30분으로 줄일 수 있다.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특별수당(allowance)을 지급해야 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의 적용과 교통수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야간 출퇴근을 위해 교통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

휴가

근로자는 21일(Working Day 기준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집안에 출산이 있거나 자녀의 질병 또는 친척 사망 등의 사유로 연간 최대 3일까지 유급 가족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해 2일 이상 휴가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고

해고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 요건은 근로자의 근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 6개월 이하: 1주
- 6개월 이상: 2주
- 1년 이상: 4주

이 외에 특별 규정으로 농장 근로자와 가사 노동자의 경우에 최초 4주가 지난 이후에는 1개월간의 해고 통지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합의나 임금 계약을 통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합의가 가능하기도 하다.

퇴직금

계약기간 종료, 고용인의 사표, 해고 시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용인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노동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산해 1년 당 최소 일주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기타

남아공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른 산업별 초임 평균으로 학력과는 무관.

남아공 단일 최저임금법은 업종, 지역, 연령 등 구분 없이 R 25.42(1757 원/2023년 5월 기준환율)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기업(고용주)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대부분의 현지 기업은 직원들의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건강 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은 아직 법안을 제정하고 있어 직원들은 보통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한다.

고용보험

실업 보험기금 (Unemployment Insurance Fund - UIF)을 적립하여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한정적으로 보호하고자 제정이 되었다. 특히 근로자 본인의 질병, 출산, 입양 등과 관련하여 실업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도 일정한 혜택이 있다. 질병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 보험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법의 보상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실업보험 기여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매달 근로자 월급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지급하되, 동 보험료에 해당하는 2% 중 1%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1%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다.

산재보험

산재 재해 보상법은 근무 중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의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법이 정한 날짜 안에 법이 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보상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연회 산정비를 지불해야 한다. 연회 산정비는 근로자의 월급과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기초로 책정되므로 고용주는 해당 양식에 기초하여 보상 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은 노동부 산하에 관장하여,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공의 고용자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많은 현지 기업들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연금에 따로 가입하고 있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남아공 법인 세율은 과세표준액기준 작년 28% 에서 2023년 3월 31일부터 27%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은 소득세 납입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는 상장이나 비상장 주식 공모회사, 모든 개인 회사, 동족 회사,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남아공 국세청 (SARS) 에 의하면 법인세는 아래의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Public companies (“Ltd”)

Private companies (“Pty (Ltd)”)

State owned companies (“SOC”)

Personal Liability Company (“Inc”)

Non profit company

Close Corporations (“CC”)

Co-operative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Small Business Corporation (s12E)

Body Corporates

Share Block Companies

Dormant Companies

Public Benefit Companies.

2023/2024년 회계연도 중소기업의 경우, 연 매출에서 과세소득이 95750 랜드인 경우 세금이 면제되며, 95751랜드에서 365000 랜드인 경우 7% 세율이 적용된다. 365001 랜드 이상 550000 랜드 이하인 경우 세금으로 18848 랜드에 365000 랜드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1%의 세율이 더해지며, 과세소득이 550001 랜드 이상인 경우는 57698 랜드에 550000 랜드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서 27% 적용되어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입한다.

개인소득세

2024년 과세연도(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의 남아공 개인소득세의 최저 세율은 18%이며, 최고 세율(45%)은 소득이 연간 1817001 랜드 이상부터 적용된다. 과세대상 소득이 연간 237100 랜드 이하인 경우에는 18%의 세율이 부과되며,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 기본 소득세와 부과 세율이 달라진다. 다만, 65세 이하의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연간 95750 랜드 이하 인 소득자, 65세 이상 ~74세 이하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연간 148217 랜드 미만인 자, 75세 이상인 소득자는 연간 소득이 165689 랜드 미만인 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정확한 세금을 공제해야 하며 매달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월 고용주 선언(Monthly Employer Declaration)이라는 양식과 함께 납입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세금 납부의 증거로 IRP5/IT3(a)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 납입 과정을 PAYE(Pay-As-You-Earn, 원천징수)이라고 하며, PAYE 등록이나 숙련공유세 납입을 목적으로 국세청에 고용주로 등록한 경우 실업 보험 또한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남아공의 부가가치세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출이나 생활필수품의 경우 제로(zero) 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 연 매출액이 100만 랜드 이상의 금액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 매각인(vendor)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밴더로 등록된 경우 판매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고, 거두어들이는 부가가치세에서 회사의 물건이나 재료 구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청에 납입해야 한다.

연 매출액이 5만 랜드를 초과한 경우는 자발적으로 밴더로 등록이 가능하다. 남아공을 방문한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납입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다수의 필수 재화에 대하여 면제된다.

부가세는 생산과 분배의 모든 단계에서만뿐만 아니라, 상품 및 일부 서비스의 수입 단계에서 재화와 용역 공급 시에 부과된다. 1996년 10월부터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금융서비스, 연금 각출금, 퇴직금, 의료 보조금 등에도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는 담배, 술, 화장품, TV, 오디오, 자동차 등 국내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부과된다. 특소세는 세원의 확보와 소비자의 억제 를 위해 부과되고 있다. 특소세 부과 대상 품목은 남아공 국세청(www.sars.gov.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이 외 임시 세금(Provisional tax)이 있는데 매년 두 차례 납입하는 것으로 첫 6개월은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 납입하여 연말 정산을 하며, 법인세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에 적용된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약칭)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법률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상업, 공업 또는 농업에 사용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고, ① 상업, 공업 또는 농업에 사용 또는 적용될 수 있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② 진보성을 가지는(진보성) ③ 신규의(신규성) 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아공에는 분할출원과 변경출원 제도가 없으며, 완전 명세서에서 기술되거나 클레임 된 발명과 관련되는 추가, 개량 또는 변경에 관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추가특허(patent of addition)가 부여된다. 남아공에는 모든 출원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청구 제도가 없고, 우선심사제도도 없다.

남아공에서는 실용신안에 관해서는 법률 및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특허와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해,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기능적 디자인과 미적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 가능하며, 이 중 기능적 디자인은 신규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진부하지 않아야 하며, 미적 디자인은 신규하고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디자인권은 등록 통지가 있고 출원인에 의한 공고가 있었던 후 바로 부여되며, 기능적 디자인은 10년, 미적 디자인은 15년간 보호된다.

남아공의 상표제도는 다른 국가와 대체로 유사하며,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갖춰야 하고 등록받을 수 없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남아공에서는 1상표 다류 1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한 건의 상표는 하나의 상품류만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상표가 공고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 말소 산정 기간은 5년이다.

이 외, 부정경쟁행위에 관해서는 법률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남아공 회사 등록청인 CIPC 공식 홈페이지(www.cipc.co.z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 https://www.cipc.co.za/?page_id=1423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청산

남아공에서의 투자법인 청산은 기업이 더이상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돼 기업 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을 뜻한다. 청산은 법원의 결정 또는 채권자에 의해 또는 기업이 자원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 자발적 법인 청산 절차(지급 가능 기업):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기 이전에 12개월 이내에 고등법원에 잔여 재산을 맡긴다. 지급 우선순위 및 방법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 CIPC에 Customer로 등록한다.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 로그인한다.
- CIPC 계좌에 수수료 250랜드를 예금한다. 관련번호로 Customer 번호를 적는다.
- CIPC 홈페이지에서 CoR40.1 과 JM12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에 liquidations@cipc.co.za로 송부한다. 임원 회의록도 함께 첨부한다.
- 소요기간: 10일(근무일 기준)

○ 자발적 법인 청산 절차(지급 불능 기업)

- CIPC에 Customer로 등록한다.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 로그인한다.
- CIPC 계좌에 수수료 80랜드를 예금한다. 관련번호로 Customer 번호를 적는다.
- CIPC 홈페이지에서 CM25a, CM100 및 JM12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에 liquidations@cipc.co.za로 송부한다. 임원 회의록도 함께 첨부한다.
- 소요기간: 10일(근무일 기준)

○ 법원의 결정에 의해 청산하는 경우

- CIPC에 Customer로 등록한다.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 로그인한다.
- 법원 재판명령 사본과 재판명령 제출자의 레터헤드를 liquidations@cipc.co.za로 송부한다.
- 소요기간: 10일(근무일 기준)

2) 철수

남아공에서 기업의 철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기업 담당자 또는 제3자의 요청에 의해서 철수(deregister)될 수 있다. 기업이 철수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 활동을 중단했을 경우와 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2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기업 등록이 취소된다.

○ CIPC(회사 등록청)에 레터 제출

- 레터 내용에 기업이 영업 중단 혹은 휴면상태이며, 보유 자산이 없거나 채무 청산 불가 상태임을 명시해야 한다.
- 또한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이유도 명시해야 한다.
- 기업 이사의 서명이 모든 페이지에 필요하며 기업의 세금 번호도 필수로 기입해야 한다.

○ 구비서류 준비

- 세금 납부 완료 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
- 기업 철수 요청 편지 서명인의 ID 복사본(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요)
- 제3자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기업의 영업 중단 혹은 휴면상태

보유 자산이 없거나 채무 청산 불가

○ 서류 스캔, 이메일 송부

- 작성한 편지와 구비서류를 모두 스캔한 이후, deregistration@cipc.co.za로 이메일 송부한다.
- 법인 철수 과정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법인 철수 확인서가 송부된다.
- 소요기간: 약 3개월

청산 및 철수 관련,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남아공 회사 등록청인 CIPC 공식 홈페이지(www.cipc.co.z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고 수준의 선진 금융 및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비재·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이 발달해있다. 세계최대 백금, 바나듐, 크롬 망간 생산국이기도 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거점 국가이기도 하다.

1차 산업으로는 광업과 농업이 발달해있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해서 일찍이 광산업이 발전하여 GDP의 약 8%, 총 수출의 약 30%를 광업이 차지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는 남아공 전체 노동 인구의 약 30%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식량을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적 산업으로 여겨진다.

남아공에서 제조로 대표적인 철강 산업은 풍부한 철강 매장량과 정부의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로 발전했으며 남아공 제조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도 제조업의 2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등이 주로 생산된다. 자동차 산업 역시 정부 주도 정책으로 매우 발전했다. 세계 주요 메이커들의 생산 및 조립 공장이 남아공에 진출해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전 세계로 수출된다.

유통 및 소비시장도 아프리카 시장을 선도한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의 진출기지로 남아공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250대 유통 기업에 포함된 아프리카 top 5 유통기업도 모두 남아공에 소재하고 있다.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남아공의 지니계수는 63(자료원: World Bank, 2014년 기준)으로,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보다도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이다. 이는 흑인계층의 전반적인 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흑인계층 간 소득 분배가 극히 불공평해 계층 간 이질감 및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흑인 정권 출범 이후 흑인계층의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흑인계층에만 부가 집중되면서 흑인계층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소비성향이 높은 흑인계층은 소득증가율보다 소비증가율이 더 높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 확대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높다.

남아공 소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블랙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남아공 흑인 중산층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랙다이아몬드는 '교육된', '젊은' 소비계층으로 남아공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남아공의 흑인 중산층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남아공 정부의 흑인 경제 육성정책에 따라 향후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백인들은 유럽 수준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중간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유층인 백인계층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대상자로서 흑인정권이 들어선 지금에도 남아공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자료원 : BMI, World Bank,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소비 성향

남아공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어, 남아공 소비 시장이 세계적인 경기 부진 속 우리 소비재 기업의 대안 시장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남아공 중산층은 소비 트렌드 역시 가전제품, 전자기기

, 심지어 의류분야 등 기존의 가격 중시 경향에서 벗어나 품질에 집중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출되는 글로벌 트렌드나 유명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구매에 있어 여전히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중산층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가라도 품질이 좋거나 글로벌 트렌드로 인기 있는 제품은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물가상승률 또한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가계소비 기준, 소비재 시장은 2020년 1,816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약 2% 성장해 1,853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2년에는 2,289억 달러 규모를 달성하였다.

또한 온라인 유통 시장이 15년간 연 20%가 넘는 성장률로 증가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주로 서적, 음반, 전자기기 등의 분야로 시작했으나 현재 식품, 의류, 여행 패키지, 주방용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은 남아공 소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품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경기가 2022년 말 2019년도의 GDP 를 넘어서며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저소득층은 활발히 소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남아공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이다. 남아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가 우리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남아공에 진출한 삼성전자 및 LG전자 제품의 가격 대비 높은 품질 수준이 남아공 소비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신흥 흑인 중산층(블랙다이아몬드)으로 가격에 민감한 남아공 시장임에도 합당한 가격과 그에 맞는 품질 및 실용성으로 한국 제품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현지 시장에 진출하며, 기존에 각광받고 있던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의료 및 의약품 등 K-방역과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더욱 제고되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Kpop과 K-drama 덕에 뷰티와 식품쪽 관심도 높아져 현지인들의 한국제품 소비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높은 유통 마진율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 정책으로 오랜 기간 UN의 경제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경제제재는 남아공 시장을 공급자 중심시장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경제제재 하에서는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비는 그다음 문제였다. 이 같은 공급자 중심의 관행은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이 때문에 유통단계별로 높은 마진율이 있어, 수입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수입가격의 2~3배 수준이다.

한국업체들 중 남아공 수입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매우 높은 것을 보고 자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해 바이어와의 상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남아공 현지 제품 가격과 바이어가 요구하는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수출가격 결정 시 시장 가격과 함께 높은 유통 마진율을 고려해야 한다.

2) 독점 에이전트 제도

남아공은 부문별로 독점 에이전트 제도가 정착돼 있어 남아공 바이어들 대부분이 상담 시 대다수가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남아공이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복수 수입상에게 제품을 공급할 경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남아공 시장은 일반적으로 요하네스버그, 더반, 케이프타운 등 3대 권역으로 나뉜다. 섬유, 기계, 전자제품 및 부품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에이전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5% 정도의 커미션을 요구하는 편이다. 남아공은 지역별로 상이한 상권 및 독특한 상관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시장 세분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각 지역에 독점 에이전트 또는 동종 업종 간 정보교환이 빨라 특정 에이전트와의 상담결과가 다른 바이어에게도 알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바이어 간 경쟁을 유발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남아공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다.

3) D/A 거래가 일반적

남아공은 수출입 거래에서 90~120일 정도의 D/A 거래가 일반적이다. 90~120일의 기한부 신용장 거래를 많이 요구하며 남아공 4대 은행(First National Bank (FNB), Standard Bank, ABSA Bank, Nedbank)이 지급 보증하는 L/C는 신뢰할 수 있다. D/A 거래에 따른 수출대금 미지급 사례도 종종 발생하므로 D/A 방식으로 남아공 업체와 거래할 경우 수출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4) A/S 시스템 구축

남아공 시장은 A/S가 중요해 1년간 품질 보증은 거의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다. 반품된 제품은 곧바로 수출업체에 클레임으로 연결된다. 특히, 기계류 및 부품 등은 남아공 현지에 A/S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바이어가 수입을 꺼리므로 현지 에이전트나 법인 설립 등을 통한 A/S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5) 다른 아프리카 시장과의 차이점

남아공 시장은 저가제품을 찾는 바이어도 많지만, 유럽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바이어도 있다. 한국 수출업체 대부분은 남아공을 다른 아프리카 시장과 비슷하게 인식하나, 남아공 바이어들 중에는 유럽계 백인들이 까다로운 품질 수준을 요구하며 소량 다품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상담 시 유의사항

남아공은 바이어들과의 첫 상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여러 공급업체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보고 거래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첫 대면을 통한 상담 이후에 충분한 교신이 이루어진 후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 교신에 이메일을 이용할 경우 답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로 먼저 연락을 취한 후 이메일로 후속 조치하는 편이 낫다.

다양한 인종이 남아공에 살고 있으며, 특히 섬유산업은 인도계 상인들이 더반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상권을 잡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이슬람교도거나 힌두교도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언급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이들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중동 지역 국가들에 대한 비판도 삼가야 한다. 남아공은 지난 1994년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였으나 아직 그 영향이 심리적으로 남아있으므로, 인종 문제에 대한 언급 또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바이어와 처음 대면하는 경우에는 남아공의 좋은 점, 예를 들어 백인 바이어인 경우 남아공의 좋은 날씨나 선진국 수준의 대형 쇼핑몰에 대해 이야기하고, 흑인 바이어인 경우 만델라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 등을 표현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2) 약속

남아공 비즈니스맨 중 백인들은 일반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다.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비교적 시간관념이 철저한 편이다. 백인 비즈니스맨들과 약속을 잡을 때는 늦어도 1주일 전에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다.

이에 반해 흑인 비즈니스맨들은 느긋함을 지향하는 편이다. 약속 시각보다 20~30분 이상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흑인 비즈니스맨들과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몇 번에 걸쳐 약속 시각과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3) 식사

남아공 비즈니스맨들과 식사를 할 경우에는 양식 또는 일식을 추천하고 싶다. 남아공 식사 문화도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육류가 주된 음식이다. 이 외에 해산물도 즐겨 먹으므로 육류, 해산물 등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무난하다.

양식 외에 일식도 추천할 만한데, 남아공에는 일식이 상당히 고급 음식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남아공 바이어들을 일식당으로 초대할 경우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남아공에는 인도계 비즈니스맨들이 많은데, 이들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도계 비즈니스맨들은 무슬림인들이 많은 편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종교나 식단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미리 물어보고 식사 장소와 메뉴를 정하는 것이 좋다.

가끔 한식을 찾는 현지 비즈니스맨들도 있는데 메뉴를 추천할 때는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4) 선물

남아공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남아공 정부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고가의 선물 제공을 제공하기보다는 간단한 성의만 표시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무난하다.

일반 비즈니스맨들과의 상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선물을 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정의 선물이 좋다. 남아공에는 아직 한국의 문화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가 있는 기념품, 공예품, 펜이나, 남아공에서는 비싸지만 한국에서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팩 같은 간단한 화장품도 괜찮다. 인삼, 홍차 또는 식음료품은 현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선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5) 인사

인사는 악수가 일반적이다. 남성인 비즈니스맨과 인사를 나눌 때는 가볍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말을 하면 되고, 여성의 경우는 간단한 인사말만 하면 된다.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최근에는 가볍게 서로의 주먹을 맞대는 일명 "주먹인사"나 가벼운 눈인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 흑인 비즈니스맨들을 만난다면 인사말을 할 때 영어보다는 그 흑인이 속해 있는 부족의 언어로 인사를 한다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남아공 흑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어를 무난하게 구사하지만 자기 부족의 언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면 매우 좋아한다.

대체로 인종에 무관하게 "Hello, how are you?" 라고 인사하는 편인데 "how are you" 까지 포함해서 인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만나는 사이여도 같이 묻고 답해주길 권한다.

남아공 사람들 대부분은 동양인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며 '니하오'라고 인사한다. 이때 중국 사람이 아니라며 정색하기보다는 '안녕하세요' 또는 '헬로'라고 인사를 받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눈이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한다. 이처럼 모르는 사람과 쉽게 인사를 하므로 중국인으로 오해해 중국어로 인사를 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중국인이 아니라며 무안을 주기보다는 인사를 받아주며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복장

한국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상담 시 정장을 입지만 남아공 바이어들은 정장보다는 편안한 세미 정장을 입고 나타난다. 따라서 남아공에서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는 양복 정장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세미 정장을 추천한다. 가끔 현장이나 공장에서 바로 상담장을 찾는 바이어들이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담을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기에 단순 문화적 차이라고 받아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팁 문화

호텔에서 짐을 운반해 준 포터에 20랜드(1~2달러) 정도의 팁을 주는 게 보통이며 방을 비울 때 역시 20랜드(1~2달러) 정도 올려두면 적당하다. 서비스 요금이 없는 곳이나 식당 등에서는 10%의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고급 식당이나 호텔 또는 일반 레스토랑에 6인 이상이 식사했을 경우에는 이미 계산서에 팁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팁을 지불해야 한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Takealot

사이트 주소	www.takealot.com
개요	남아공에서 현재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가전, 의류, 주방용품, 영유아 용품, 식품 등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 온라인 쇼핑몰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남아공 내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며 2021년 연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하기도 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Takealot은 2011년 6월 공식적으로 런칭 되었으며 2015년 Kalarahi.com과 합병되었다. 남아공 최대 상장사인 Naspers가 96%를 소유하고 있으며 3억 1,01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Takealot 외에 패션 온라인 쇼핑몰 Superbalist와 식품 배달 앱 Mr. D Food가 소속되어 있는 Naspers의 Etail Takealot Group 부문의 2021년 연간 매출은 총 6억 600만 달러에 달한다.
주요 판매 품목	패션, 도서, 게임, 가전, 가정용품, 가구, 장난감, 영유아 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가전이나 IT기기, 주방용품 등의 할인율이 높은 편이다.
특징	매일 일부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일 프로모션(Daily Deal)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배송도 빠른 편이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 도심에 위치한 컬렉션 포인트에서 직접 수령도 가능하다.

○ Superbalist

사이트 주소	www.superbalist.com
개요	현지 최대 뷰티 패션 온라인 유통망으로 의류, 잡화, 소형가구 등이 판매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0년 론칭 이후 2018년 6월 온라인 패션 유통망인 Spree와 합병되었는데 월 방문자 수는 약 6,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perbalist의 매출규모는 Naspers의 Takealot Group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 Superbalist의 연간 판매액은 전년 대비 45% 성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주요 판매 품목	의류, 잡화 등 패션 상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소형가구, 화장품 등 또한 취급한다.
특징	홀리카홀리카, 투쿨포스쿨, 잇츠스킨 등 한국 화장품이 판매되는 전용 페이지가 있다.

○ Makro

사이트 주소	www.makro.co.za
개요	미국의 Costco 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품을 대용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 한다. 식료품, 전자제품, 가정용품, 캠핑 및 야외장비 그리고 주류까지 폭 넓은 품목을 판매하고 있어 4인 이상 가족이 주로 이용한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설립연도는 1971년으로 현재 남아공에 22개의 점포가 있으며 2011년 Massmart와 미국의 Walmart가 합병하였다. 2014년에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남아공에서 3번째로 방문자 수가 많은 사이트가 되었다. 연매출은 5억6500만 달러, 고용인원은 3230명 정도로 추정된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전, 가구, 유아용품, 식료품, 주류, 패션잡화, 사무용품, 게임용품 등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 온라인 쇼핑몰이다.
특징	멤버십 카드를 만들어야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시 가까운 분점에서 pick up 하거나 집으로 배달 하는 옵션중 선택 할 수 있다.

○ One Day Only

사이트 주소	www.onedayonly.co.za
개요	남아공 최대의 일일 프로모션(Daily deal) 온라인 쇼핑몰로 일일 150여개의 상품이 할인가로 판매되는데, 매일 판매되는 상품이 달라진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9년 특정 펀딩이나 파트너 없이 창립멤버 2명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약 2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본사는 케이프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확한 매출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주요 판매 품목	소형가전, 가구, 잡화 등 소비재 상품이 주로 판매되며 여행상품이나 주류도 판매된다.
특징	화요일은 여행상품(Travel Tuesday), 수요일은 와인(Wine Wednesday) 등 요일에 따라 특정 상품군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일 프로모션이 끝난 상품들도 재고가 있는 경우 Clearance 섹션에서 구매 가능하다.

○ Woolworths

사이트 주소	www.woolworths.co.za
개요	남아공 프리미엄 식료품 및 생활용품 판매점으로 남아공 외에도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0개국에 자리잡고 있다. Woolworths SA 와 Country road Group 으로 나뉘어 Woolworths SA 에는 패션, 뷰티, 가정용품, 식료품, 금융 서비스 가 있고 Country road group 에는 여러 의류 브랜드들 (Country road, Trenerly, Mimco, Witchery 와 Politix) 가 포함되어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남아공에는 1931년 케이프타운에 첫 점포를 열었다. 2022년 연매출은 대략 608만 달러, 전 세계적으로 4만4000명 정도의 고용인원을 가지고 있다.
주요 판매 품목	유기농 식료품, 가정용품, 주방용품 및 의류, 침구류, 뷰티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 한다.
특징	Woolworths 카드 중 결제금액 중 일부를 근처 학교에 지원금으로 기부 할 수 있는 옵션, 장애인 고용율과 친환경 적인 방침 (2018년부터 플라스틱 봉지 판매 금지)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에도 힘쓰는 착한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아프리카 지역 초도 수출 성공

N사는 식품 포장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는 금속 이물질을 탐색하는 금속검출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고품질 외국산 장비를 능가할 정도의 좋은 성능을 기반으로 하여 내수 시장 점령 후 해외시장 개척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1991년부터 국내 최고 고성능 디지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금속검출기를 개발 출시하고 HACCP에 완벽 대응하는 솔루션을 구축해 미국 및 중국 등 해외시장을 개척했다.

N사는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취급하는 금속검출기 브랜드 및 관련 업체 시장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했다. 시장 조사 이후, 남아공 현지에서 다른 브랜드를 취급하는 업체들에 N사 제품을 마케팅하는 가운데 독일산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남아공 기업이 N 제품의 우수한 성능에 관심을 보였다.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에서는 직접 업체를 방문해 제품 카탈로그 등을 전달하며 현장 밀착형 집중 지원을 시작했다.

바이어는 성능이 좋은 독일산을 남아공 시장에 마케팅을 하고 있었으나, 많은 최종 사용자들은 비싼 가격에 금속검출기를 쉽게 구입하고 있지 못했다며 우수한 성능과 독일산 제품에 비해 저렴한 한국기업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현지 기업과 한국기업은 무역관과 함께 현지 고객에게 판촉했으며, 주문을 받아 초도 물량 수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 간 가격 협상 와중에 현지 바이어가 한국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 요청을 무역관으로 보내왔다. 그 이유는 한국기업의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은행정보 훼손 때문이었다. 무역관에서 바로 한국기업에 연락해, 현지 바이어의 의사를 전달하고 해킹에 관한 조치를 요청했다. 한국기업의 경영진의 빠른 대응 및 정상적인 거래업체임을 재확인해 바이어에게 전달했다. 무역관의 이런 우회 지원을 통해 절반 물량 정도로 첫 거래를 최종적으로 성사시켰다.

현지기업이 초도 주문물량을 인수받아 현지 최종사용자에 설치 완료 후 사용자가 만족해 연간 최소 오더 5만 달러 보장, 2년간의 에이전트 계약을 완료했다. 이듬해 추가 주문을 받았으며, 현지 유명잡지 광고 집행, 유망 전시회에 공동 참가 및 현지 웹사이트를 만들어 마케팅을 활발히 했다. 현재 이 기업은 남아공 외 나미비아, 보츠와나, 모잠비크 등 남부 아프리카 주변국으로 수출 확대 계획을 하고 있다.

2) 우수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과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수출 성공

면도기는 인종, 소득층 및 문화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하는 필수품으로, D사는 자사의 면도기를 남아공 시장에 수출하고자 했다. 동사의 제품은 글로벌 유명 브랜드 제품에 비해 품질이 뒤처지지 않고 가격은 약 20~30% 저렴해 남아공 중·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D사는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을 통해 알게 된 역량 있는 바이어와 협력하기 시작했고, 남아공 대형 소매 채널에 입점했다.

그러나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남아공 시장에서 이미 점유율이 높은 글로벌 브랜드 제품과 경쟁하기에 너무나 불리했다. D사는 바이어와 함께 KOTRA의 지원을 받아 브랜드 밸류 제고를 위해 마케팅에 최선을 다했고 효과적인 마케팅 끝에 판매량 확대에 성공했다. 나아가 타 아프리카 국가에도 진출을 확대해서 콩고와 앙골라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2016년 아프리카 매출은 160억 원을 달성했다.

3) 남아공 정부 입찰 시장 진출

M사는 국내 D 기업이 남아공 광케이블 입찰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00년에 인수한 현지 자회사이다. 주요 생산 제품은 광케이블, 알루미늄 컨덕터, 동선, 전력 케이블 등이다. M사가 남아공에 진출하기 전까지 남아공 광케이블 입찰시장은 Aberdare와 ATC만 납품을 하는 사실상의 독점 시장이었다. 이는 남아공의 UN 경제 제재 동안 해외에서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하여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국내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M사는 2001년에 남아공 국영 통신기업인 Telkom이 발주한 광케이블 공급입찰에 참가하여 25만 Fiber Km을 2004년까지 3,500만 달러에 납품하기로 낙찰을 받았으며 2004년도에는 그동안의 우수한 품질 및 납기 기한 준수를 인정받아 공급계약을 3년간 연장하여 동 기간 중 100만 Fiber Km을 1억 달러에 공급하기로 했다.

M사가 입찰에 성공한 요인은 첫째 선진 제조공법(VAD 공법) 도입을 통한 제품 차별화였다. M사는 기존 납품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품 차별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고, 선진 제조공법(VAD 공법)으로 생산한 고품질 광케이블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고품질 광케이블로 인해 입찰 단가는 경쟁업체 대비 3%나 높았지만, 최신 공법 도입에 따라 품질 점수를 높게 받았고 제품 보증기간을 15년으로 제시함

으로써 높은 기능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흑인기업 우대정책(BEE)을 잘 활용한 것이었다. 남아공은 흑인기업 가산점이라는 독특한 정부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기업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D사는 이러한 흑인기업 가산점을 십분 활용하여 M사 인수 과정에서부터 회사 지분의 일부를 흑인에게 양도해 입찰 참여 시에 흑인기업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신뢰 확보였다. 입찰 발주처인 Eskom은 M사의 15년 장기 제품보증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M사의 본사인 국내 D사가 품질 및 납기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입찰 낙찰 후 3년에 걸친 공급 기간에 적기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신뢰를 한층 더 확보하였다. 이는 공급 계약 연장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요인이 되었다.

4) 남아공 소형 화물 트럭 시장 석권

국내 자동차 회사인 H사는 대형차 위주의 남아공 화물 차량 시장에 남아공 최초로 1.3톤 규모의 소형 화물차를 출시함으로써 틈새시장 마케팅을 전개하여 현재 남아공 내 소형 화물차 부문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소형 화물차 시장에 대한 남아공 소비자들의 숨겨진 수요를 끌어내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5) 남아공 생리대 기부 사업

M사의 생리대 기부 사업은 2018년에 시작되어 현재 총 4차례 진행되었다. 생리대 부족으로 인한 아프리카 여학생들의 잦은 결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기업 M사는 남아공, 보츠와나 등 2개국 취약계층 여학생 대상 생리대 40만 장을 기부하고 현지 정부 기관의 협조하에 현지 생리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지 사회문제 해결과 진출을 연계한 대표 투자진출 성공사례이다.

6)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비해 열악한 의료 시설과 부족한 진단 키트로 남아공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국내기업 G사는 지속적인 화상상담을 통해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 국립보건검진기관 등 정부 소속 연구기관과 진단장비 구매를 협의, 남아공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 최초 수출 후 남아공 보건기기규제위원회(Sahpra)의 진단키트 인증 및 등록절차 강화에 따라 추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0년 9월 승인에 성공하여 지속적으로 수출이 진행 중이다.

우수한 의료기술과 각광받고 있는 K-방역으로 남아공 현지에서는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더 상승하였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각인 받고 있다. 정확성은 물론이며, 채혈을 통한 간단 진단 방식 및 단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국내기업 제품들의 강점이다. 다소 복잡하고 시간 또한 오래 걸리는 남아공의 의료 인증 절차들을 모두 통과하여 성공적으로 남아공 시장에 진출한 사례이다.

7) 광케이블 악세사리 수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및 남아공 국가 봉쇄가 강화되면서 현지 기업들의 재택 근무가 활성화되며 광케이블 및 관련 액세서리 제품 수요가 급증하였다. 코로나 사태를 발판으로 2020년도부터 수출액이 전년도 대비 390% 이상 급증하며 단가가 낮은 제품 특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기준 16만불 수출 달성하였다. 현지 거래선에서 입찰 및 프로젝트 참여 목적으로 가격을 요청할 경우 특가 제안, 납품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거래선의 월 기준 평균 발주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하여 해당 기업용 재고 별도 상시 보유하여 높은 품질과 적극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등으로 현 거래선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8) 발전소 정비 수주

D사는 2022년 남아공 전력공사(Eskom) 소유 화력, 원자력 16개 발전소의 OH공사(종합 분해, 수리, 점검 공사)를 228억원 상당에 수주하였다. 2013년 D사 진출 당시 남아공 발전소가 이미 해외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선택했다. 현지 유망기업 발굴 및 현지 직원 트레이닝으로 한국 파견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본사 기술부서와 유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원가 절감 및 정비 품질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남아공 정부의 자국기업 육성책과 부합하여 입찰에서 고득점 기록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발전소 주변 대학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당국과 현지에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하였다. GE, 지멘스 등 해외 대기업이 선점하던 아프리카 발전소 정비 시장에서 2021년 170억원 규모의 Eskom 발전소 정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2년 연속 성과를 낸바, 향후 3년 이상 장기 사업 계약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 실패사례

해당 사례 없음.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한국-남아공 양국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남아공은 한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입국,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한 남아공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여행 목적으로 방문 시 30일 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주한 남아공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3개월 여행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현지에서 만료 기한 전에 남아공 내무부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 신청에는 약 1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남아공 비자종류는 주한 남아공대사관 홈페이지(<http://southafrica-embassy.or.kr/kr/visa/visas.php>)에 자세히 나와 있다. 비자 신청 시에는 비자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비자에 맞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방문비자: 3개월 미만 관광, 학업 및 비즈니스 방문 목적으로 받는 비자
- 사업비자: 남아공 경제에 이득이 되는 사업 계획 혹은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는 목적
- 일반 취업비자: 남아공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직책에 필요한 자격, 기술,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신청 가능
- 중요 기술직 취업비자: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엔지니어, 과학 분야, 의사, 약사, 남아공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해 발급됨.

* 남아공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지난 2022년 8월, 개정된 중요 기술직 비자 발급 대상자 명단(잠정)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명단으로 남아공 경제에 먼저 필요한 직업군 중심으로 총 140개의 기술직이 선별됐다. 현재 본 명단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 중이며 각종 기관, 회사, 개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방문객은 남아공 입출국 항에서 다음 입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기계판독 가능하며, 미사용 비자(사증) 페이지가 2쪽 이상 남아있으며, 여권 만료일이 방문이 끝난 후 남아공을 출국하는 시점에서 30일 이상 남아있는 유효 여권
- 해당 시, 유효한 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하는 관련 서류
- 남아공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전 기간 필요한 자금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귀국편 또는 다음 목적지행 비행기 표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남아공 이민법 주요 개정 내용(2014년 5월)

- VFS(Visa Facilitation Services) 제도 도입

남아공 이민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내무부(Home Affairs) 사무실에서 비자 신청을 받지 않는다. 2014년 6월 2일부터 비자 대행업체인 Visa Facilitation Services(VFS)를 통해서만 접수를 받으며 신청서를 스캔, 내무부 본부로 송부 기능을 한다. 비자 수수료 이외에도 비자 접수 대행료로 1,350랜드를 각 비자 신청 시 납입해야 한다.

- 주재국에서 비자 종류 변경 불가(제9조)

기존에는 방문자 비자로 입국하여 남아공 내에서 노동 비자 또는 학생 비자로 전환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신청인이 통상 거주지 또는 국적지, 주 한국 남아공대사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예외조항은 ① 긴급 의료 서비스 ② 노동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노동 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 체류 기간 경과자에게 부과했던 벌금제 폐지(제26~27조)

기존에는 불법 체류 또는 체류 기간을 경과한 경우 공항에서 2,000~3,000랜드의 벌금을 납입하면 출국 후 재입국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체류 기간을 경과한 경우 해당인을 'undesirable'로 처리해 추후 비자 신청 시 최대 5년간 입국금지 등 제재하게 된다. 동 법을 어기고 추후 입국할 경우 공항 내 Detention Centre에 구금되었다가 귀국 조처된다. 따라서 방문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한 경우, 비자에 규정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비자 종류별 변경 사항

- 주재원 비자(제18조)

- 지상사 근무를 위한 주재원 비자는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본사에서 최소 6개월 근무 요건 추가(기존에는 없음)

- 방문 비자 (제11조)

- 방문 비자에서 다른 비자 전환 불가 (예외조항)
- 전환 시 만료 60일 이전 신청
- 3개월 이상 방문 비자로 체류 시 경찰신문조회서 제출 규정 추가

- 일반 노동 비자 (제18조): 기존에는 신문 광고, 인터뷰 결과 제시, 남아공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 또한 외국인을 고용해도 남아공 노동자와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해야 했다. 새 이민법 개정 이후에는 상기 관련 보증서한을 남아공 노동부에서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고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및 남아공 노동법 준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무부와 함께 노동부의 내부 처리 기간은 일반 노동비자 신청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된다.

- 비즈니스 비자(제14조): 통상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부터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추천서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통상 산업부는 해당 비즈니스에 대해 타당성 조사 및 해당 비즈니스가 남아공에 어떤 국가적 이익을 기여할 것에 관한 타당성 조사 (forensic assessment)를 시행하게 된다(과거 기업에서도 가장 간단한 선 타당성 조사도 최소 2~3주 소요되었는바, 통상 산업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민국에 통보해야 하므로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2023년 5월 기준 남아공 입국 시 코로나 관련 서류 (테스트 결과 및 백신접종지)는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착용의무도 폐지 되었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품목별 면세품 보유한도

- 담배: 200 개비
- Tobacco: 250g
- Cigars: 20 개비
- 주류: 1리터
- 와인: 2리터
- 향수: 50mL (Eau de toilette: 250mL)
- 일반 선물 용품
 - 5,000랜드(약 330달러) 이하: 면세
 - 5,000~20,000랜드(약 330~1,320달러): 20%
 - 20,000랜드 이상(약 1,320달러 이상): 관세 및 부가세(15%)

중국인 방문객들의 불법적 물건 반입이 빈번하여 동양인들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있다. 비즈니스 상담을 위해 제품 샘플 등을 소지하고 오는 경우 남아공 세관에 신고하고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TA Camet을 발급받아와서 통관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출장자는 세관 신고 없이 샘플 등을 반입하나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남아공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27) 12-460-2508
주소	265 Melk Street, Nieuw Muckleneuk, Pretoria 0181, South Africa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za-ko/index.do
비고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27) 66-332-5897

○ 한인회

전화번호	(27) 83-424-2014
주소	POBOX 100613, Moreleta Plaza, 0167, Pretoria
홈페이지	http://homepy.korean.net/~saka1/www/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전화번호	홈페이지 참고
주소	홈페이지 참고
홈페이지	http://www.gov.za
비고	세부기관 연락처는 웹사이트에 기재되어있는 목록을 참고 바람

○ 남아프리카공화국 산업통상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전화번호	(27) 12-394-9500
주소	77 Meintjies Street, Sunnyside, Pretoria, Gauteng, 0002
홈페이지	http://www.thedtic.gov.za

○ 남아프리카공화국 상공회의소(SACCI)

전화번호	(27) 11-446-3800
------	------------------

주소	33 Fricker Road, Illovo, Johannesburg 2196
홈페이지	http://www.sacci.org.za

○ 비즈니스데이(Business Day)

전화번호	(27) 11-280-3000
주소	Hill on Empire, 16 Empire Road (corner of Empire and Hillside), Johannesburg
홈페이지	https://www.businesslive.co.za/bd
비고	남아공 최대 경제일간지

○ IOL

전화번호	(27) 21-488-4001
주소	47 Pixley Seme Street, Johannesburg
홈페이지	https://www.iol.co.za/
비고	남아공 최대 일간지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8.91ZAR(2023년 11월 기준)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세트	2.110
2	식품	비빔밥	1인분	6.35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7.67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69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01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1.5l	0.860
7	음료	콜라(마트)	1.5l	1.060
8	의료	항생제	12정	8.57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530
10	교통	도시간 전철 요금 (Gautrain 기준)	기본요금	1.8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3.70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2.82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360
14	기타	도심 아파트 임대료	월	406.68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5.320
16	여가	담배	1갑	2.66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5.820
18	임금	최저임금(월 기준 / 주 40시간 근무시)	법정최저	232.84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초등학생) 수업료	연	7340.46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8.250
21	식품	쌀	1kg	1.370
22	식품	식빵	한묶음	0.860
23	식품	소고기	1kg	6.270
24	식품	계란	12개	1.740
25	식품	우유	1L	0.970

26	식품	식용유	1L	4.23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085
28	주거	수도세	KL	2.380
29	주거	가스비	9kg	17.45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최소)	월	150.00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42.00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연, 준중형	37.12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kW	0.250
34	기타	나이키 러닝슈즈	1켤레	79.770
35	서비스	TV 수신료	연	14.01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21.150
37	기타	여름 원피스	1벌	28.250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개월	10.58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5.00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12.000

<자료원 : Numbeo,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료>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남아공 화폐단위는 랜드(RAND)로 약칭은 R이며, 주화는 5, 10, 20, 50센트 및 1, 2, 5랜드가 있고 지폐는 10, 20, 50, 100, 200랜드가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쇼핑몰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전소에서 할 수 있고 환율은 환전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암시세 환율은 없다. 환전 시에는 13%의 환전 수수료를 징수하며 쓰고 남은 남아공 랜드화를 달러로 재환전할 때는 당초 랜드화로 환전한 증명서를 첨부하고 여권, 항공권 등을 제시해야 환전할 수 있다. 남아공에서 달러화로의 환전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고, 외화를 불법 유출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언제든지 환전 가능하며 환전 시에는 여권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정한 외화가 외국으로부터 남아공에 유입돼 그 유입자금이 다시 반출되는 경우 외화유입 시 은행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반출할 수 있다. 환전할 때는 은행마다 환율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고 현금보다는 여행자수표의 환율이 유리하다. 최근 공항에서 환전하는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공항에서의 환전을 삼가야 한다. 쇼핑몰 내 환전소를 이용할 때도 최소한의 금액만 환전하고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현금은 되도록 많이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이용

남아공 현지의 신용카드 사용은 비교적 보편화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일반 상점이나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는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비자, 마스터 등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라면 남아공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시장 등 길거리 상에서는 현금 위주의 거래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용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Samsung Pay나 Apple Pay와 같은 스마트 결제 또한 가능해지고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남아공 국내교통은 항공, 철도, 버스 등이 있는데, 남아공의 경우 국토면적이 넓어 원거리 이동 시에는 대부분 항공편을 이용한다. 철도 및 버스는 치안 문제로 인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근거리 이동 시에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외국인이 남아공 내에서 운전하려면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남아공의 도로시설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해 있다. 주 도시내에서는 특히나 도로시설이 잘 발달된 편이지만 순환단전 (Loadshedding)이 점점 심해지면서 신호등이 전기공급이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므로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 이동하기에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서의 사고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외곽 쪽이나 시골로 갈 수록 길에 포트홀 (pot hole) 이라고 불리는 구덩이들이 길에 만연할 수 있으니 제한속도 보다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차량은 왼쪽 차선으로 운행하며, 운전석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한다. 거리 및 제한 속도는 킬로미터로 표시한다. 제한 속도는 고속도로 등지에서 120km/h이며, 좁은 국도 및 지방도에서는 100km/h, 그리고 도심구간에서는 80km/h 또는 60~100km/h이다.

교통체증은 출근 시간인 6시~8시 사이, 그리고 퇴근 시간인 16시~18시 사이에 심한 편이다.

버스

버스는 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시외버스와 시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나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이용할 만한 시내버스는 하우트레인 (Gautrain)과 연계된 버스로만 제한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외의 시내버스 (PUTCO)는 대부분 흑인이 이용하고 있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하다.

장거리용 럭셔리 버스류는 Greyhound, Intercaple 등이 있으며 국내선 비행기에 비해 많이 저렴하기에 현지인들이 애용하지만 요하네스버그에서 케이프타운까지 꼬박 하루가 걸리는 여정이므로 시간대비 비용을 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택시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호텔을 통해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공항에서는 미터기를 부착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택시 간판 없이 불법 영업을 하는 승용차 이용은 금물이다. 이동거리에 따라 운행요금이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SANDTON 지역 호텔까지 택시 요금은 약 400~500랜드이다.

최근에는 우버 택시 이용이 많아져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어플을 통해 택시를 예약할 수 있고, 요금은 어플상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이 외에 우리나라 소형 승합차와 같은 형태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 주로 흑인들이 이용한다. 차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많고 운전을 워낙 험하게 해서 이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이런 택시의 경우 현금만 유통하기에 강도의 표적도 되기 쉬우므로 매우 위험하다.

항공

남아공은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55배에 달하고 있어 남아공 내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나라 관광객 및 출장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인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는 국제 및 국내선 공항이 있다. 요하네스버그-케이프타운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는데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다. 항공 운임은 요하네스버그-케이프타운 기준, 20만~30만원 정도이다.

다. 통신

핸드폰

휴대폰은 현재 4개 회사(Vodacom, Cell C, MTN, Telkom)가 있으며 신청 후 바로 개통(SIM 카드 등록 시스템상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된다. 통상 한국과 비슷하게 휴대폰 계약 기간은 24개월이며 휴대폰 기기 할부 값은 전화사용료와 포함되어 정산된다. PRE-PAID폰의 경우 단말기가 있으면 때때로 원하는 금액만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남아공은 RICA라는 심 카드 사용자 등록 제도를 도입해 휴대폰과 SIM 카드는 자유롭게 구입 가능하지만 SIM 카드 등록을 해야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폰 기준 구입자는 물론이며, 신규 구매자는 신분증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Proof of Residence, 호텔에서라도 발급 가능)를 가지고 등록절차를 거쳐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남아공의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한국과 달리 신청 후 2~6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거주지를 옮기면 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서비스의 명칭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방법을 사용할 시 신청 및 가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신규가입을 원한다면 통신업체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비교 작업이 요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관광명소

○ 골드 리프 시티(Gold Reef City)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Northern Pkwy &Data Cres, Johannesburg
운영시간	월~화요일: 휴무 수~일요일: 9:00~17:00 성탄절 제외 모든 공휴일에 영업하지만 수요일은 당일 티켓 판매량이나 기기보수등의 이유로 휴무일수 있으니 수요일 방문 예정이라면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는것을 추천한다.
명소소개	과거에는 금광이었으나 현재는 관광지로 개발돼 요하네스버그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Sandton 지역으로부터 차량으로 약 30분이 소요된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고 지하 280m까지 직접 내려가서 과거 금광을 둘러보는 코스가 있다.
비고	전화: +27-11-248-5000 홈페이지: https://www.goldreefcity.co.za/ 자유이용권이 포함된 입장료의 가격은 250 랜드 (약 1만7천 원)이며 3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입장 가능하다.

○ 라이온 파크(Lion Park)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R512 Pelindaba Rd, Hartbeespoort, Broederstroom
운영시간	월~금: 8:00~17:00 주말 및 공휴일: 8:00~17:00
명소소개	요하네스버그 중심지에서 서북쪽 외곽으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사파리를 즐기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 시내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약 50마리의 사자들과 얼룩말, 사슴 등 여러 초식동물을 볼 수 있다.
비고	전화: +27-87-150-0100 홈페이지: www.lionandsafaripark.com 입장료는 승용차당 어른 250 랜드(약 1만7천 원),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이며, 공원 내 차량으로 투어를 할 경우 어른 기준, 375 랜드(약 2만6천 원)부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다.

○ 썬 시티(Sun City)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R556, Sun City, 0316
운영시간	월~금: 9:00~18:00 주말: 9:00~18:00
명소소개	남아공 기업 Sun Group에서 조성한 관광 명소로 카지노, 호텔, 수영장, 골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하네스버그에서의 거리는 약 200km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하여 있으며, 요하네스버그 Sandton Sun 호텔 앞에서 매일 9시 관광버스 또한 출발하여 당일 17시에 썬 시티에 도착할 수도 있다.
비고	전화: +27-14-557-1000 홈페이지: www.suninternational.com/sun-city/ Day Visitor로서의 입장료는 성인 395 랜드 (약 2만7천 원), 3-12세 어린이는 290 랜드 (약 2만 원) 그리고 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이다.

○ 테이블 마운틴(Table Mountain)

도시명	케이프타운
주소	Table Mountain, Cape Town
운영시간	계절과 날씨에 따라 운영시간이 달라지므로 웹사이트에서 미리 확인 하는것을 추천한다.
명소소개	케이프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 명소로 정상이 마치 테이블처럼 평평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케이블 카를 통해 정상에 오를 수 있으며 케이프타운 시내와 대서양, 인도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비고	전화: +27-21-424-0015 홈페이지: www.tablemountain.net 티켓은 오전, 오후 및 편도 혹은 왕복에 따라 가격이 나뉜다. 성인은 오전 (8:00-13:00) 왕복 티켓의 경우 395 랜드 (약 2만7천 원) 이며 4~17세 어린이는 195 랜드 (약 1만3천 원) 정도이다. 오후 티켓 (13:00~마감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 날씨에 따라 운영 가능성이 판가름 나므로 사용기간을 구입 날짜로부터 7일로 정해 놓았으며 이 기간 안에 환불도 가능하다.

○ 케이프 포인트(Cape Point)

도시명	케이프타운
주소	Cape Peninsula, Cape Town
운영시간	4월~9월: 7:00~17:00 10월~3월: 6:00~18:00
명소소개	케이프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희망봉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아프리카 남단으로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대륙 개척 시 처음 도착한 지점으로 유명하다.

비고	<p>전화: +27-21-780-9010 홈페이지: www.capepoint.co.za</p> <p>입장료는 성인 기준 376 랜드 (약 2만6천 원)이며 2~11세의 어린이는 188 랜드 (약 1만3천 원)이고 전차 이용료는 성인 기준 왕복 티켓이 90 랜드 (약 6천 원), 그리고 6~16세의 어린이는 75 랜드 (약 5천 원)이다</p>
-----------	--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및 각 명소 사이트 참고>

마. 식당

- 현지식당

○ 부처샵(The Butchershop & Grill)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전화번호	(27) 11-784-8676
주소	Nelson Mandela Square, Sandton City, Sandton
가격	약 5만5천 원(1인 기준)
영업시간	월~일: 12:00~22:30
소개	요하네스버그의 중심지인 Sandton City 쇼핑센터에 위치했으며 각종 스테이크 요리로 유명하다.

○ 빅마우스(Big Mouth)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전화번호	(27) 63-293-8869
주소	Shop No 13 &14 of Nelson Mandela Square Corner of Maude and, 5th St, Sandton, 2016
가격	약 13달러(1인 기준)
영업시간	월~일: 12:00~21:00
소개	중심지인 Sandton에 위치 하였으며 스시롤, 해산물, 스테이크 등 메뉴 다양하다.

○ 지오바니(Sale e Pepe Da Giovanni)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전화번호	(27) 11-883-7020
주소	Morningview Shopping Centre, 100 South Rd, Morningside, Sandton, 2146
가격	약 3만 3천 원 (1인 기준)
영업시간	화~일 : 12:00~20:30

휴무일	월요일
소개	Sandton에 위치한 정통 이탈리아 식당으로 피자와 파스타 요리로 유명하다.

○ 크림(Kream)

도시명	미드랜드
전화번호	(27) 10-591-0023
주소	Mall of Africa, Waterfall City, Magwa Crescent, Midrand
가격	약 4만2천 원 (1인 기준)
영업시간	월~토: 11:00~22:00 일: 12:00~20:00
소개	남아공의 최대 쇼핑몰 중 하나인 Mall of Africa 의 레스토랑 중 하나이며 스테이크 요리로 유명하다.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 한국식당

○ 반찬(Banchan)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전화번호	(27) 72-913-3269 / (27) 11-883-0020
주소	Corner of 10th St & Elizabeth Ave, Parkmore, Sandton, 2196
가격	약 3만9천 원 (1인 기준)
영업시간	월~수 : 11:30~15:00 / 16:30~21:30 목~토 : 11:30~21:3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샌톤에 위치한 한국식당

○ 대장금(Dae Jang Kum)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전화번호	(27) 11-234-7292
주소	Edenburg, Johannesburg, 1431
가격	약 4만 원 (1인 기준)
영업시간	화~일: 11:30~22:00
휴무일	월요일
소개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한국식당

○ 한국관(Korean Garden)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전화번호	(27) 11-467-0488
주소	71 Troupant Ave, Magaliessig, Sandton
가격	약 4만5천 원 (1인 기준)
영업시간	월~토: 11:00~15:00/16:30~21:3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한국식당

○ 신라(Shilla Korean Cuisine)

도시명	프레토리아
전화번호	(27) 12-346-3260
주소	20 Maroelana St, Maroelana, Pretoria
가격	약 3만5천 원 (1인 기준)
영업시간	월~토: 11:30~14:00 / 17:30~21:30
휴무일	일요일
소개	프레토리아에 있는 한국식당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및 각 음식점 사이트 참고>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샌톤 시그니처 럭스 호텔(Signature Lux Hotel Sandton)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135 West St, Sandown, Sandton, 2146
전화번호	(27) 11-085-9500
홈페이지	https://signatureluxhotels.com/
숙박료	약 8만5천 원
소개	샌톤 중심에 위치한 호텔 중 가장 저렴하고 크기는 작지만 쾌적한 편. 비즈니스 호텔로 많은 출장자들이 이용하고 있음.

비고	조식은 부페가 아닌 단품 메뉴 선택이며 와이파이 무료 제공
----	----------------------------------

○ 인터컨티넨탈 호텔(InterContinental Sandton (Sandton Towers))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Corner 5th and, Maude St, Sandton
전화번호	(27) 11-461 9744
홈페이지	http://www.intercontinental.com
숙박료	약 21만 원
소개	남아공 중심부인 Sandton에 위치한 호텔로 호텔 내에 여러 편의 시설들을 겸비하고 있어 출장 중 이용하기 적합한 호텔이다.
비고	성수기, 비성수기별로 요금 차이가 있으며 현지화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샌튼 선(Sandton Sun)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Corner of Alice Lane and 5th St, 4th Floor, South Tower, Nelson Mandela Square, Sandhurst, Sandton
전화번호	(27) 11-780-5000
홈페이지	https://www.southernsun.com/sandton-sun-hotel?utm_source=google&utm_medium=businesslisting&utm_campaign=hotel_sandton-sun
숙박료	약 22만 원
소개	남아공 중심부인 Sandton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Forum이나 여러 비즈니스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들 또한 겸비한 호텔이다.
비고	성수기, 비성수기별로 요금 차이가 있으며 현지화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 게스트하우스

○ 낙원 게스트하우스 (Paradise (Nakwon) Guest house)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2 Alon road, Morningside, Sandton
전화번호	(27) 82-413-6637 / (27) 82-553-2523
숙박료	약 14만7천 원, 110 달러 (아침, 저녁 및 세탁비 포함)

○ 클레어스 오브 샌턴 럭셔리 게스트 하우스(Claire's of Sandton Luxury Guest House)

도시명	샌턴, 요하네스버그
주소	42 8th St, Parkmore, Sandton
전화번호	(27) 11-784-1639
숙박료	약 7만7천 원
소개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로 평점이 높고 시설 또한 좋아 여러 관광객으로부터 이용되는 게스트 하우스이다.

◦ 스파큐브 럭셔리 스위트 & 스파(Spacube Luxury Suites and Spa)

도시명	프레토리아
주소	79 George Storrar Dr, Groenkloof, Pretoria
전화번호	(27) 83-459-4062
숙박료	약 7만 원
소개	프레토리아의 Groenkloof 지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근처에 Groenkloof Nature Reserve 가 있다.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사. 치안

치안상황

남아공의 치안 상황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각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범죄자가 총기를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에 의한 사망 사고가 대부분이다. 야간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입은 절대 금물이다. 공항에서도 손가방 분실 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 옆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운 후 상대방의 신분증 및 운전면허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외에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등을 기억하여 놓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주위에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운전 시 사고를 대비해 항상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때에는 최소 2~3곳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 분실에 대비해 복사본이나 사본을 사진 형태로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주재국 경찰 등 신분증 검사를 대비하여 여권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아 소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사관에 연락

을 취하고 여행증명서나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 이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3) 응급 전화번호

- 휴대폰으로 응급 전화 걸 때: 112(무료)
- 화재 신고: 10177
- 범죄 신고: 10111
- 의료 앰블런스 서비스: 10177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남아공은 증가하는 범죄율 때문에 집을 구할 경우에는 방법조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다수의 주택이 공동의 경비원을 두는 공동주택(Estate, Townhouse, Cluster)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현지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동산 홈페이지는 Property24와 Private Property으로, 매물의 90% 이상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 일간지인 The Star의 주택임대차 광고를 통해 집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동산 에이전트의 광고가 대부분일 만큼 에이전트 활용이 보편화돼 있다. 에이전트를 활용할 경우 수수료는 임대인만 임차료의 10% 수수료를 에이전트에게 지불하고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통상 6개월이나 1년 계약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갱신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임차료를 물가상승률 감산 5~10%가량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과 달리 전세의 개념은 없으며 임차의 경우 월세만 가능하다. 동일한 규모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위치나 방범 상태 등에 따라서 임차료가 다양한데, 범죄율이 높은 특정지역이 있기 때문에 최초로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현지에 먼저 정착한 사람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 세 개가 있는 규모의 집은 치안이 확보된 지역의 경우 2~3만 랜드 정도면 구할 수 있지만 주택 임차료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금리 인상과 물가급등에 따라 주택 임차료가 급상승하고 있다.

주택 임차 시에는 임차료 1개월분의 보증금을 함께 지불하며, 계약 전 부동산 에이전트 혹은 임대인과 함께 각종 기물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 한 후

계약 만기 시 각종 기물 파손 여부를 다시 확인한 후 손상된 기물만큼 공제한 후 환불받게 된다.

전화

남아공은 전화사정이 열악한데다 행정처리가 대단히 늦기 때문에 전화 신청 후 통상 1~2개월이 지나서 전화가 설치되면 다행일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 행정처리 속도가 많이 개선돼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된다.

전화 신청은 해당 지역 전화국에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단 2년 사용 약정 신청을 할 경우 보증금 없이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휴대폰은 현재 4개 회사(Vodacom, Cell C, MTN, Telkom)가 있으며 신청 후 바로 개통(SIM카드 등록 시스템상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된다. 통상 한국과 비슷하게 휴대폰 계약 기간은 24개월이며 휴대폰 기기 할부 값은 전화사용료와 포함되어 정산된다.

PRE-PAID의 경우 단말기와 SIM카드가 있으면 때때로 원하는 금액만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남아공은 RICA라는 Sim카드 사용자 등록 제도를 도입해 휴대폰과 SIM카드는 자유롭게 구입 가능하지만 SIM카드를 등록해야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폰 기존 구입자는 물론이며, 신규 구매자는 신분증(남아공 ID 혹은 여권만 가능)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Proof of Residence, 호텔에서라도 발급 가능)를 가지고 등록절차를 거쳐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전압/플러그

남아공의 표준전압은 220~250V/50HZ 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전자제품은 별도의 전압조절 장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남아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는 둥근 모양의 3핀인 B3 타입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2-in 플러그에 변환 어댑터를 연결해 사용해야 한다.

한국 온라인 판매 사이트나 공항에서 판매하는 전세계 공용 멀티플러그 어댑터는 남아공의 플러그가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어댑터는 호텔에 비치돼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구입 가능하다. 가격은 40랜드 내외이다.

식수

남아공의 수도물은 직접 식수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지인들의 대부분은 직접 수도물을 마시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도꼭지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필터 제품이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수를 마시는 것도 유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현지인들이 수도물을 직접 마신다.

다만 지역별 수도물 품질의 차이가 크고 2023년 2-3월에 남아공에 콜레라가 돌았으며 그 당시 남아공 정부에서 수도물을 바로 마시는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했었으므로

생수를 사 마시거나 부득이할 경우 수도물을 끓여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남아공에서의 모든 이동은 대부분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동차 구입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딜러가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므로 브랜드를 결정하고 구입 가격을 지불한 후 자동차를 인수하고 보험회사를 선택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반면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고차 매물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중고자동차 딜러, 경매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직접 매매할 경우에는 매매계약 후 자동차검사 및 등록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차량가격

남아공은 중고차 시장이 크게 발달해 있으나 한국보다 중고차 가격이 비싼 편이다. 차량 구매 시 아래에 기재된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가격 비교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 www.autotrader.co.za
- www.cars.co.za
- www.carfind.co.za
- www.webucars.co.za

운전면허 취득

한국의 운전면허증은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에서 번역 및 공증을 받으면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운전 시 한국 면허증 원본도 지참 필수), 국제면허증으로 남아공 현지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남아공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시 자국의 면허증을 남아공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한데, 이 절차는 영주권을 발부받은 이후 5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신분증
- 신분증용 사진 4부
- 자국 운전면허증
- 남아공 영주권
- 거주 증명서

그 외의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www.transport.gov.za)에 안내되어 있다.

현지에서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할 경우 한국과 유사하게 1차 필기시험, 2차 기능 및 주행 시험을 통과하면 취득이 가능하나 심사 기준이 비교적 까다롭고 절차 진행이 느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ABSA: (Amalgamated Banks of South Africa)
 - www.absa.co.za
- FNB: (First National Bank)
 - www.fnb.co.za
- Standard Bank
 - www.standardbank.co.za
- Nedbank
 - www.nedbank.co.za

계좌 개설방법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일 경우에는 여권),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Proof of Residence)와 함께 소속 회사 명의의 신원보증서(레터 형식)가 필요하다. 남아공 은행들은 당좌의 경우에 입출금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원금손실이 크고, 은행마다 그리고 상품마다 저축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종류별로 신중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좌가 개설되면 은행은 계좌 개설인에게 수표체크를 발행해 주지만 개인용 수표는 일반적으로 신원이 서로 확실한 관계가 아니면 통용이 잘 되지 않는 불편이 있다. 따라서 은행은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현금인출용 카드와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이를 선택하면 된다.

남아공에는 Amalgamated Banks of South Africa(ABSA), Standard Bank, First National Bank(FNB), NedBank 등 다양한 은행이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The International School of South Africa

도시명	노스웨스트
커리큘럼	Cambridge International Curriculum
학비	연간 : 13만9천200 랜드 (약 978만4천 원, 12학년 기준)
홈페이지	http://www.issa.co.za

비고	학비의 경우 학년마다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	---

○ Alma Mater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커리큘럼	Cambridge Curriculum
학비	연간 : 10만7천 랜드 (약 752만 원, 12학년 기준)
홈페이지	http://www.almamaterinternationalschool.co.za
비고	학비의 경우 학년마다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 International School of Cape Town

도시명	케이프타운
커리큘럼	UK National Curriculum
학비	연간 : 14만4천 랜드 (약 1천12만 원, 12학년 기준)
홈페이지	http://www.isct.co.za
비고	학비의 경우 학년마다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 현지학교

○ Rondebosch Boys High School

도시명	케이프타운
커리큘럼	National Senior Certificate
학비	연간 : 6만5천 랜드 (12학년 기준) 기숙사비 : 6만 랜드 (12학년 기준)
홈페이지	http://www.rondebosch.com
비고	학비의 경우 학년마다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 Jeppe High School for Girls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커리큘럼	National Senior Certificate
학비	연간 : 4만2천 랜드 (12학년 기준)
홈페이지	https://jeppegirls.co.za
비고	학비의 경우 학년마다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다. 병원

◦ Mediclinic Sandton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1 Peter Place, Bryanston, Sandton
전화번호	(27) 11-709-2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 Chris Hani Baragwanath Hospital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26 Chris Hani Rd, Diepkloof 319-lq, Johannesburg
전화번호	(27) 11-933-0967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병원으로 약 6천명의 직원과 3,400개의 병상을 보유

◦ Mediclinic Cape Town

도시명	케이프타운
주소	21 Hof St, Gardens, Cape Town
전화번호	(27) 21-464-5500
진료과목	종합병원

◦ Life Faerie Glen Hospital

도시명	프레토리아
주소	Atterbury Rd, Faerie Glen, Pretoria
전화번호	(27) 12-369-56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o Mall of Africa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Lone Creek Cres & Magwa Crescent, Waterfall City, Gauteng
홈페이지	http://www.mallofafrica.co.za
비고	남아공의 Waterfall City, Midrand에 위치한 쇼핑센터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단상 쇼핑센터이다.

o Sandton City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Unit U61a, Sandton City, 83 Rivonia Rd, Sandhurst, Sandton
홈페이지	http://www.sandtoncity.com
비고	남아공 중심지인 SANDTON 에 위치해 있으며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

o V & A Waterfront

도시명	케이프타운
주소	19 Dock Rd, Cape Town
홈페이지	http://www.waterfront.co.za
비고	V & A Waterfront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호텔, 소매점, 식당,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복합 쇼핑센터이다.

o Canal Walk Shopping Centre

도시명	케이프타운
주소	Canal Walk, Century Blvd, Century City, Cape Town
홈페이지	https://canalwalk.co.za
비고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쇼핑센터로 약 400개의 상점과 20개의 영화관을 갖춘 총 14만 제곱 미터의 대형 쇼핑몰이다.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 식품점

o Woolworths

도시명	남아공 전역
주소	남아공 전역

취급 식료품	과일, 채소, 육류 등 대부분의 식품 취급
--------	-------------------------

○ Pick 'n Pay

도시명	남아공 전역
주소	남아공 전역
취급 식료품	과일, 채소, 육류 등 대부분의 식품 취급

○ Spar

도시명	남아공 전역
주소	남아공 전역
취급 식료품	과일, 채소, 육류 등 대부분의 식품 취급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 기타 편의시설

○ Virgin Active

도시명	남아공 전역
주소	남아공 전역
홈페이지	http://www.virginactive.co.za/
소개	Virgin Active는 남아공에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트니스센터이다.

○ The Country Club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Cnr Woodlands Drive &Lincoln Street, Woodmead
홈페이지	http://www.thecountryclub.co.za/golf
소개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컨트리클럽으로 골프장뿐만 아니라 스쿼시장, 수영장, 크리켓장 등 다양한 시설들을 겸비하고 있어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비고	회원 등록 시 더욱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 The River Club Golf Course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Links Rd, Driefontein 41-lr, Sandton
홈페이지	https://riverclub.co.za

소개	Sandton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높은 명성과 평점을 보유하고 있다.
----	--

○ Saxon Spa

도시명	요하네스버그
주소	36 Saxon Rd, Sandhurst, Johannesburg
홈페이지	https://www.saxon.co.za/saxon-spa
소개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스파로 각종 미용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자료원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사. 현지 공휴일

없음.

10. KOTRA 무역관 안내

○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18th Floor, Sandton Office Tower, Corner Rivonia Road & 5th Street, Sandton, South Africa
- 전화번호: +27-11-784-2940

공항-무역관 이동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약 40Km(45분 소요) 거리이다.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약 400~500랜드(22~28달러), 우버택시를 이용하면 약 350~400랜드(20~23달러) 정도 지불한다. 택시 표시가 되어 있는 택시나 호텔에서 운영하는 승합차도 이용할 수 있다. 투숙호텔의 승합차가 없을 경우 SANDTON 지역 호텔에서 운영하는 승합차를 이용하여 SANDTON 지역까지 도착한 후, 무역관까지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호텔 카운터에 CALL TAXI를 요청하면 된다.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샌톤 지역 간 고속철(Gautrain)도 이용할 수 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친 후 도착 출구로 나와 안내정보 표지판 옆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층 올라가서 공항 내 도보 20~30m 후 고속철도 역에서 탑승한다. 공항에서 Sandton역까지의 요금은 191랜드(11~12달러)이며, Sandton 역에서 무역관까지의 거리는 약 500m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호객행위 차량은 치안을 위해 삼가야 한다.

자가 운전 시 무역관은 SANDTON CITY SHOPPING MALL과 연결된 SANDTON OFFICE TOWER 18층에 위치해 있다.

- R24 도로를 JOHANNESBURG 방향으로 주행(약 15KM)한다.
- N3 도로표지판이 나오면 PRETORIA 방향으로 주행(약 15KM)한다.
- MARLBORO 도로 표지판이 나오면 SANDTON 방향으로 주행(약 5KM)한다.
- MARLBORO 도로와 SOUTH 도로 교차점에서 우회전, 약 3KM 계속 주행한다.
- SOUTH 도로와 RIVONIA 도로 교차점에서 좌회전, 약 1KM 계속 주행한다.
- RIVONIA 도로에서 SANDTON OFFICE TOWER 쪽으로 우회전한다.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2023 남아공 프레토리아 아프리카 소비재 대전(K-Lifestyle)	2023-05-19 ~ 2023-05-20	Korean Cultural Centre	KOTRA, KCC
2023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보안 장비 전시회(Securex SA)	2023-06-06 ~ 2023-06-08	Gallagher Convention Centre	Specialised Exhibition
2023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건설 건축 전시회(African Construction Expo + Totally Concrete)	2023-06-27 ~ 2023-06-29	Gallagher Convention Centre	DMGT
2023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의료기기 전시회(Africa Health)	2023-10-17 ~ 2023-10-19	Gallagher Convention Centre	Informa Markets
2023 남아공 케이프타운 포장 및 프린팅 전시회	2023-10-24 ~ 2023-10-26	Cape Town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Specialised Exhibition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